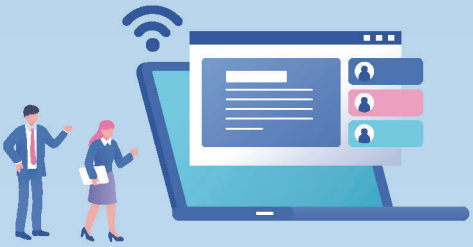
세미나자료 2023-22

2023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2023. 11. 22. (수), 14:00 - 17:00 | 정동1928 아트센터 컨벤션홀



주 최 육아정책연구소

2023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일시	2023년 11월 22일(수), 14:00~17:00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 룸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사회자 : 김나영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시간	세부내용
14:00 ~ 14:10	**개회사** ㅣ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ㅣ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이상진 단장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이삼식 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참석자 소개**
14:10 ~ 14:50	**이슈 연구 발표** ㅣ 이효림 교수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한국유아교육학회 총무이사) **좌 장** ㅣ 김동훈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정책연구팀) **토 론** ㅣ 도남희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안세아 연구위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사진 촬영 및 휴식	
15:00 ~ 15:30	**정책공모전 결과 보고** ㅣ 이재희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 ㅣ 김나영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15:30 ~ 16:10	**각 기관별 주요 관심 의제 발표 (각 3분)** (*ㄱㄴㄷ 순) **<학 회>** • 한국가족학회 •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육아지원학회 **<지역연구기관>**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언 론>** • CBS, EBS, SBS, 브릿지 경제
16:10 ~ 17:00	**각 기관별 현안 공유 및 원탁토론**
17:00	**폐 회**

CONTENTS

개회사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축 사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이상진 단장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이삼식 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이슈 연구 발표 이효림 교수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한국유아교육학회 총무이사) ····· 1

• **토 론**
도남희 ı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17
안세아 ı 연구위원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21

정책공모전 결과 보고 이재희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 25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 김나영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 35

각 기관별 주요 관심 의제 발표

• **학 회 _ 55**
- 한국가족학회
-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육아지원학회

• **지역연구기관 _ 87**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 **언 론 _ 99**
- CBS, EBS, SBS, 브릿지 경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오늘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를 주제로 올해 두 번째로 준비한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축사를 해주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님,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이상진 단장님,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님,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요 관심 의제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소속 학회, 지역 연구기관과 언론사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육아정책연구소를 비롯하여 유관 정부부처와 학계 등은 육아정책에 관련한 활발한 논의들을 이어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청년의 주거와 결혼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저출생 정책의 필요성, 갈수록 줄어드는 소아과로부터 느끼는 육아인프라 취약 위기에 대한 고민, 정부의 적극 추진에 따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서의 쟁점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과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들,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적절한 활용을 둘러싼 고민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을 둘러싼 양육 환경은 매우 빠르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관 산학연과 단체, 언론 등의 협력체계로서 연구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제적인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자 오늘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특별히 '뇌발달과 영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연구 발표를 해 주실 한국유아교육학회 이효림 교수님과 이에 관해 토론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박사님,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안세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소의 이재희, 김나영 박사님께서 올해 연구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육아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제안한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 수요 내용과 함께 육아정책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선과 의제들이 논의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시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 11. 22.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축 사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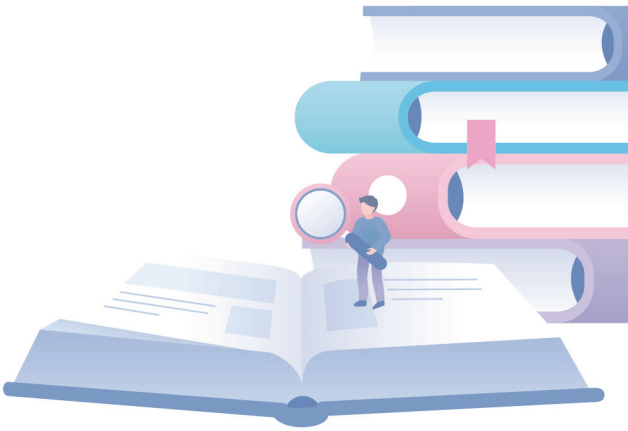
이상진 단장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이삼식 협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이슈 연구 발표

이효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
한국유아교육학회 총무이사



영유아 사교육과 뇌 발달*

이효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총무이사

Ⅰ. 들어가며

[르포] 대치동은 '7세 고시 전쟁중'… "레벨테스트 신청 대리 알바도 성행"

…'4세 영유 대비 학원-5세 영유-7세 영어학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대치동에선 영어 교육 엘리트 코스로 통한다….〈중략〉…이미 사교육 시장에 발을 들인 학부모들은 보상 심리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탓에 사교육 광풍에 올라타 있었다…..〈중략〉…잠실에서 대치동으로 아이를 등원시킨다는 김 모 씨는 "주변에서 과한 학습에 틱 장애가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다"며 "솔직히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들 때가 많지만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고 말했다…〈중략〉…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2021년 107만 원, 2022년 115만4000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23만9000원으로 늘었다…(후략)

정유민 기자(ymjeong@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51862

한국의 사교육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평균 학습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23).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3.1%, 참여율은 3.2%의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유아 사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유아 사교육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교육이 더욱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됨을 보고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세아는 1.7개의 사교육을 주당 2.6회, 1회당 48분 하고 있으며, 5세아는 평균 2.2개의 사교육을 주당 평균 5.2회, 회당 50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대다수 유아가 방과 후 특별활동 3가지 이외에 주당 3시간 47분 동안 평균 5.01회, 2.4가지 종류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경자, 심성경, 2019). 지난 7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이전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전체의 65.6%, 과목별로는 국어 74.3%, 수학 70.6%, 영어 61.3%, 예체능 56.2% 순이었다. 이는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

* 본 발표문은 박수경, 이효림(2023)의 연구 내용 일부를 재구성하여 포함함.

고 학생들과 가정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유아 사교육 열풍은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 외에도 다양한 상황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민석옥, 배지희, 2014).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장유진(2014)은 한 지역의 유아 사교육 열풍에 대하여 세계화와 영어의 필요성, 한국 사회 여성의 교육·취업·육아구조, 한국의 학력·학벌주의라는 거시적, 추상적, 비일상적 맥락 이외에도, 사교육 기관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대중매체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생후 첫 3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유아기 뇌 발달에 대한 오해와 지나친 일반화 역시 이를 부추긴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Twardosz,2012). '3세 이전에 사람의 뇌 80%가 완성된다', '학습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등 뇌 과학적 지식이 사교육 시장에서 조기교육의 근거로 상업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음악이 공간추리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지능이 향상된다는 '모차르트 이펙트(Mozart Effect)'로 둔갑된 것과 같다. 기초 신경과학 연구를 부모와 교사를 위한 권장 사항으로 직접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Bailey, Bruer, Symons, & Lichtman, 2001; Jones & Zigler, 2002).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간의 뇌 발달 관련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과, 이에 대한 오해를 중심으로 영유아기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영유아의 뇌 발달

1. 영유아의 뇌는 순서대로 발달한다. : 본능, 정서, 이성의 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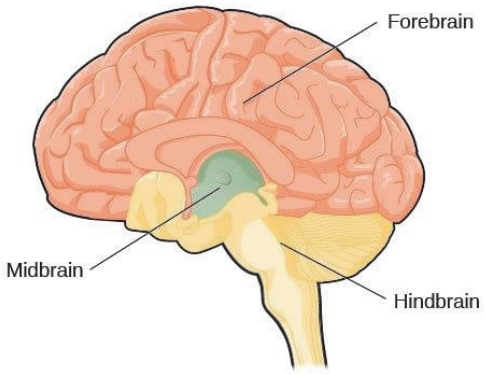


그림 1. 전뇌, 중뇌 후뇌의 구분

전뇌는 더 높은 인지기능을 처리하고, 중뇌는 운동과 감각 처리를 제어하며, 후뇌는 협응, 균형, 호흡 및 심박수와 같은 자율 기능을 관리한다.
(https://www.simplypsychology.org/forebrain-midbrain-hindbrain.html)

뇌는 전뇌(forebrain), 중뇌(midbrain), 후뇌(hindbrain)로 이루어져 있다. 전뇌는 좌, 우 두 개의 대뇌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뇌반구의 표면에 있는 세포층이 대뇌피질이라는 회백질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라고 하는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반구의 뉴런은 뇌량과 전교련이라는 두 개의 축삭 다발을 통해서 다른 쪽 반구의 뉴런과 소통한다. 대뇌피질의 아래에는 감각과 운동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달하는 시상(thalamus)과 시상하부, 그리고 변연계(limbic system)가 자리 잡고 있다. 후뇌는 연수, 교, 그리고 소뇌로 구성되며, 연수와 교, 중뇌, 그리고 전뇌의 일부 중

앙부 구조물들이 뇌간(brain stem)을 형성한다(Kalat, 2004).

구조적 측면에서 태내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부위는 후뇌, 그중에서도 뇌간이다. 뇌간은 호흡, 심장박동, 혈압 및 체온조절 등 생존과 직결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명 '본능의 뇌'이다. 수정 순간부터 생후 15개월까지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아기 대부분의 뉴런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영역에서 약간의 시냅스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발달되는 영역은 중뇌로, 일명 동물, 감정, 본능의 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변연계(limbic system)는 생후 15개월에서 4세 무렵까지 활발하게 발달하며,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전환중추인 해마(hippocompus)는 4세 전후로 성숙한다. 뇌량의 수초화는 1세부터 시작되며, 4~5세 무렵 안정된다. 마지막으로 피질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계획하는 일명 '이성의 뇌'이다. 다른 부위에 비해 늦게 발달이 시작되고 성인기까지 지속되는데, 3세까지는 뇌 전반에 걸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앞에서 뒤로 발달해 간다(김유미, 2006).

이처럼 우리의 뇌는 아래에서 위로 발달해 나가며, 하나의 단계가 충족되어야 다음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어린 연령일수록 본능적 욕구 충족이 필요하며, 특히 영양과 수면은 평생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뇌 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신생아가 뇌의 성장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75%에 육박한다. 신경의 발생과 이동, 분화, 시냅스의 형성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철, 구리, 아연 등이 필수적이며, 결핍될 경우 해마, 선조체, 피질, 망막 등 두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usick & Georgieff, 2016).

또한 수면과 수면주기는 임신 26주에서 28주 경에 시작되며, 수면 방해와 수면 주기의 중단은 감각 발달의 초기 과정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 수면과 수면주기는 태아와 신생아의 신경감각 및 운동 시스템 발달뿐만 아니라, 기억 및 장기기억 회로 생성, 그리고 평생 동안 뇌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육자들은 어린 영아들이 충분히 수면하고, 자신의 수면주기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Graven & Browne, 2008).

2. 시냅스 가지치기는 뇌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뇌의 발달과정은 크게 세포의 증식(proliferation)과 이동(migration), 분화(differentiation), 시냅스의 생성(synaptogenesis), 가지치기(pruning), 수초화(myelination)라는 주요한 과정을 거친다. 한 뉴런 안에서의 정보 전달은 전기적 방식으로,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은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시냅스는 우리 뇌의 각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회로를 생성하는 기본 단위로, 출생 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냅스의 생성과 제거가 이루어지는데, 출생 후에는 주로 시냅스의 형성과 제거, 그리고 수초화를 통해 뇌가 발달해 나간다. 영아기에 하나의 뉴런은 약 15,000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고, 매초 700여 개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시냅스가 탄생하여, 만 3세 정도 유아의 시냅스의 수는 성인의 시냅스의 두 배 정도에 달하게 된다.

인간의 경험에 따라 근접해 있는 뉴런 간의 상호 관련성에 따라 시냅스 생성이 이루어지고, 사

용되지 않는 시냅스의 소멸과 축삭돌기의 수축이라는 퇴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Connell, 2005). 시냅스가 축삭의 퇴화(degeneration), 수축(retraction), 탈락(shedding) 등에 의해 소멸하는 현상을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 pruning)이라 부른다(Thompson, 2010). 일반적으로 시냅스 밀도는 5~6세까지 계속 증가하지만, 다음 4~5년 동안 시냅스 가지치기가 지속된다. 만 10세 정도가 되면 시냅스는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해 약 50%가 제거된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총 시냅스의 숫자는 안정화되며, 시냅스 가지치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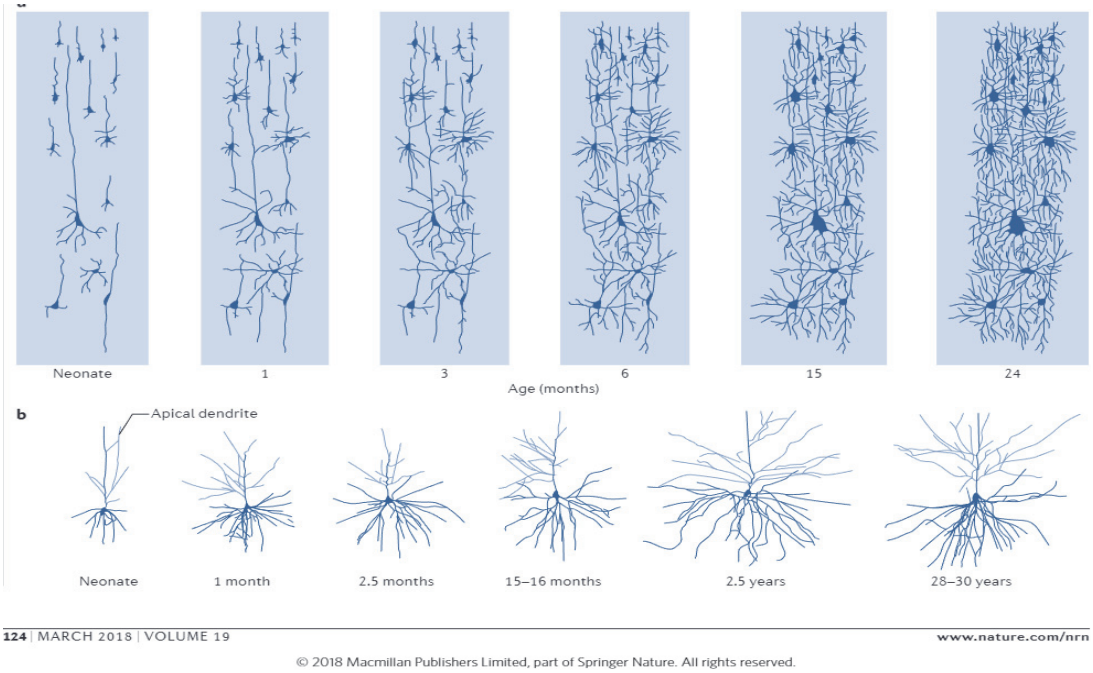


그림 2. 영아기 시냅스의 형성과 가지치기 (https://doi.org/10.1038/nrn.2018.1)

이미 만들어진 시냅스가 없어지는 것은 두뇌가 더 효율적이고 활동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 결과, 조현병(schizophrenia) 환자에게서는 너무 많은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 over-pruned)가, 자폐스팩트럼 환자에게서는 너무 적은 시냅스 가지치기(synaptic under-pruned)가 관찰되었다. 선별과정을 거쳐 남아 있는 시냅스는 감각, 인지 등 이후의 발달을 위한 최종 형태가 되며, 이러한 가지치기의 효과는 지속적이다. 따라서 가지치기는 예방할 수 있거나 예방해야 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Bruer & Greeough, 2001).

3. 영유아기는 결정적 시기! 그러나 뇌는 평생동안 변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의 발달이란 시냅스와 신경회로의 생성, 소멸 등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통해 개별화된 뇌의 회로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다. 모든 뉴런의 상호 연결 관계를 종합적으로 표

현한 것을 커넥톰(connectome)이라 하며, 마치 개개인의 DNA와 이에 따른 유전 정보가 다른 것처럼 개인별로 차이가 난다. 커넥톰을 분석하면 일종의 '뇌 지문(brain fingerprint)'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승현준 신경물리학 교수는 지난 2010년 TED 강의에서 "나는 나의 커넥톰(I am my connectome)"이라고 선언하며, 커넥톰이 유전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특성을 완전히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뇌의 신경 네트워크(neural network)의 연결상태를 뜻하는 위상(topology)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의 뇌의 상태만을 보여준다. 즉, 커넥톰은 현재의 나를 보여주지만, 과거의 나, 미래의 나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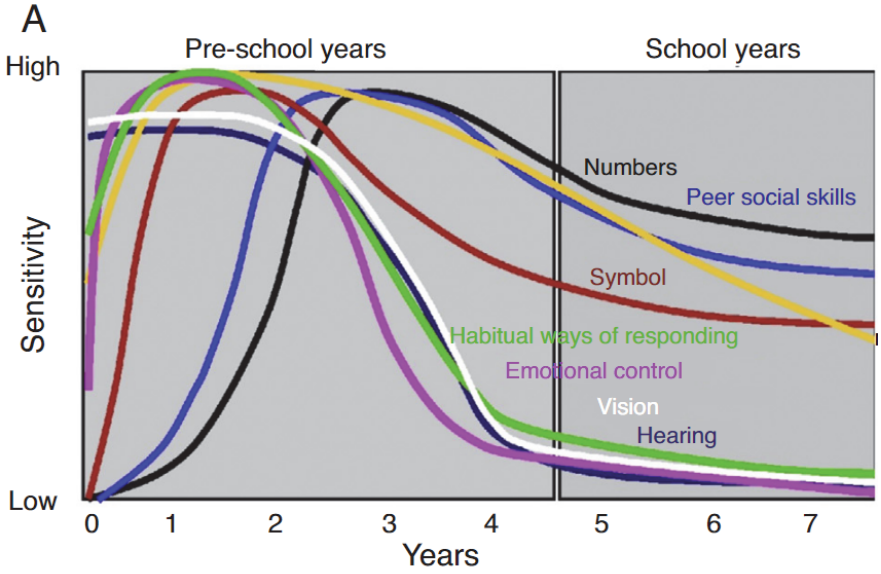


그림 3.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민감기 (Leisman, G., Mualem, R., & Mughrabi, S. K., 2015)

시냅스의 강도가 변하는 성질을 가소성(plasticity),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 혹은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이라 부르며, 이는 경험 기대 (experience-expectant) 가소성과 경험 의존(experience-dependent) 가소성으로 구분된다. 경험 기대 가소성은 특정 영역에서 시냅스의 과잉 생성 후 인간 종에게 기대되거나 공통되는 경험에 의해 조직화되고 정리되는 것으로, 시각, 직립 보행, 눈과 손의 협응, 모국어 습득, 정서적 관계 형성 등과 관련된다. 대조적으로 경험 의존 가소성은 개별적인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시냅스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학습 및 기억과 동일시된다. 경험 기대 가소성과 경험 의존 가소성은 성인 초기까지 동시 발생하지만, 이후 성인의 뇌는 개인의 경험과 학습에 반응하여 계속 변화한다(Twardosz, 2012).

학자들은 영유아기가 인생에서 뇌 가소성이 가장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 "뇌 발달 결정적 시

기"(critical period)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유기체의 뇌의 영역이나 기능이 특정하게 제한된 기간에 경험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시기가 존재하기만, 갑자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뇌 영역의 반응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민감기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또한 민감기는 경험 기대 가소성과 관련된 용어로, 경험 의존 가소성, 즉 학습 및 기억과는 무관하다(Twardosz, 2012).

게다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 청각, 정서 통제, 습관적 대처방식 등은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뇌 영역의 반응성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수, 또래관계, 상징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능력의 변화 가능성은 학령기 이후까지 지속된다. 민감기는 이 시기에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학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인지적 자원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경험 기대 가소성은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환경을 활용하여 영유아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추후 뇌를 움직이도록 하는 구조와 메시지 일부를 형성한다. 생애 초기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뇌 발달에 큰 손상을 입혀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이 시기의 과도한 발달이 일생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유아기는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의 뼈대를 만드는 시기로, 시각, 청각, 언어, 정서 등과 같이 기대되는 경험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습과 기억, 그리고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며, 특히 성인기 이후에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4. 과도한 스트레스는 아이의 뇌 발달을 망친다.

과도한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뇌 발달을 저해하는 직접적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중재에 관련된 뇌의 영역은 학습 및 기억에 관련된 해마와 전전두피질, 그리고 정서 반응에 관련된 편도체이다. 스트레스나 공포와 같은 정서는 편도체와 해마 등이 포함된 변연계의 필터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각기관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억으로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변연계의 필터를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명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감각 입력은 변연계의 필터에 의해 차단되며 대뇌 피질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학대와 같은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놀람, 분노, 절망, 혹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의 영향으로 인해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극한 감정 반응(정동 반응)이 강요되는데. 장기간의 긴장이나 불안의 정동 반응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게 된다. 코르티솔은 뇌 구조 및 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받은 아동의 뇌에서는 대뇌 피질과 대뇌변연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며(그림 4. Perry, 2002), 시냅스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크기도 작다. 시냅스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방출로 인해 학대 체험을 기억하는 신경회로가 생성되는데, 이는 이후의 사소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이나 불안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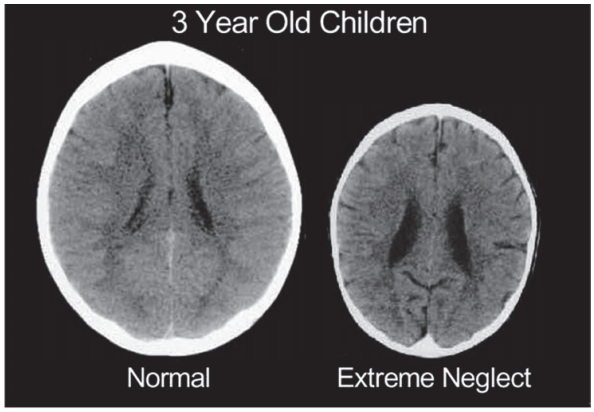


그림 4. 보통의 어린이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어린이의 뇌 (Perry, B. D., 2002)

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며, 곧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결국 학습 능력 결함, 자기 억제 및 주의력의 발달 저해 및 편향적 성격 형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뇌의 왼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발달 저해가 뇌파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뇌 발달 저해는 이후의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생애 초기의 다양한 스트레스(빈곤, 학대, 방임 등)를 경험한 아이들을 추적한 결과, 10세 경 해마와 편도체가 비교집단에 비해 덜 발달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의 부정적 경험과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뇌 발달을 저해하며, 특히 정서를 관장하는 편도체와 해마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서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Hanson et al., 2015).

특히 뇌 발달 민감기인 유아기의 경우, 적절한 자극은 유아기 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이른 인지 과제, 너무 많은 자료나 교구의 제공은, 유아로 하여금 정보처리방식을 부정적이거나 대충 처리하게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 등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아기 뇌 발달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경험과 부정적 경험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5.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부모 혹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가장 적합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어미 쥐가 새끼 쥐를 키우면 해마의 시냅스 발달이 촉진되고 공간 학습이 향상되며, 새끼 쥐가 출생 후 경험하는 양질의 보살핌의 양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u, Diorio, Day, Francis, & Meaney, 2000; Meaney, 2004; Parent et al., 2005). 자신을 돌보는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고 유대를 맺는 신경 각인(neural imprinting)은 초기 뇌의 시냅스 연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뇌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결국 풍부한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가 있는 유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훨씬 낮거나, 높은 코르티솔 수치도 금방 낮아지므로 코르티솔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사교육으로 인해 미디어나 매체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영유아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유형은 스마트기기 활용을 포함한 학습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미디어 노출은 조기교육이나 과다한 자료의 제공

과 같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을 수동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다중작업이 뇌를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는 뇌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인데, 이는 전전두피질에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려 할 때 실행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Tomopoulos et al.(2010)은 종단연구를 통해 6개월 가량의 영아가 미디어에 노출되면 14개월이 되었을 때 인지 및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와 언어 발달이 모두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화면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 시간과 언어, 실행력 등에 관여하는 뇌의 백질의 발달 사이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백질이 덜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utton et al., 2020).

보다 직접적으로 Zivan와 그의 동료들(2019)은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책을 한 집단은 사람이 직접 읽어주면서 질문도 하였지만, 다른 한 집단은 녹화된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직접 책을 읽어준 아이들은 시각적 주의력이 향상된 반면,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뇌파 활동이 증가하였다. 즉, 동일한 자극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건전한 뇌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Ⅲ. 제 언

1. 부모들을 위한 제언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영유아기 사교육이 현재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삶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습 관련 사교육에서 유아의 요구 반영도를 살펴본 정경자와 심성경(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응답에서는 '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48.9%)'와 '주로 유아의 요구에 의해(40.3%)' 순으로 나타났지만, 유아 응답에서는 '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49.6%)' 다음으로 '전적으로 부모의 요구에 의해(33.1%)'라는 응답이 많았다.

에히리 프롬(Erich Fromm)은 소유양식에 빠져 물질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삶은 비어있고 허전하며, 존재양식을 통해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존재양식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자아, 창조성, 인간관계, 정서적 연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통해 삶의 희열을 찾는다. 반면, 소유양식은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며 자아를 그 대상과 동일시하는데,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장유진, 2014).

영유아기 사교육이 부모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영유아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뇌 발달 측면에서 생애 초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전 생애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영유아기의 과도한 학습 자극이 뇌 발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영양과 수면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의 충족, 부모의 따듯한 보살핌과 상호작용이 뇌 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의 뇌는 각 발달 시기별로 기대하는 경험이 있으며, 한 시기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그 다음 발달로 이어진다. 영유아기에는 튼튼한 뇌 구조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정책 입안자를 위한 제언

지난 6월 26일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아 공교육을 모토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교육 내에서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이에 앞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본질과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은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학부모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영유아 사교육과 뇌 발달에 관한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뇌 과학자들은 이중언어 혹은 외국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반면(Byers-Heinlein & Lew-Williams, 2013), 모국어가 완성되고 모국어로 만들어진 센스나 시냅스를 가지고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거나, 조기 외국어 노출이 발달적 문제를 야기한다(권현경, 최규화, 2020)는 의견도 있다.

최근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서연과 배지영(2022)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배운 영어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아니라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 이해도, 흥미도가 높다는 점은 유아 사교육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영유아기의 조기영어교육이 이후의 학업적 성공과 관련된다는 입장에서는 출발선 보장을 위해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공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과도한 조기영어교육이 부정적 발달을 초래한다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영어 노출 자체의 스트레스인지, 부모의 양육태도인지, 교육방법의 문제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사교육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교육에 노출된 시기, 노출된 사교육의 종류, 양 등이 영유아의 뇌와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검토한다면, 공교육 긍정적인 측면에서 공교육에 도입해야 할 부분과 부정적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 공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주 (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권현경, 최규화 (2020.1.17.). “유아기 때 두뇌 완성? 선행학습이 뇌 발달 망친다”. BabyNews.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8에서 2023년 11월 9일 인출.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Chiu Chih Peng, 정광희, SajaniemiNaina Kristiina (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III):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영, 최효미, 최지은, 장미경 (2016).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Ⅱ-2 세와 5 세를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민선옥, 배지희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동교육, 23(4), 263-285.

이서연, 배지영. (2022). 초등학생의 조기영어교육 실태 연구. 초등영어교육, 28(1), 127-145.

장유진 (2014). 목동 엄마들의 분재(盆栽) 만들기: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 구조와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17(1), 159-195.

정경자, 심성경 (2019). 사교육의 실시 현황 및 유아의 불만족도가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4(4), 177-199.

통계청.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Twardosz, S., 2012. Effects of experience on the brain: The role of neuroscience in early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23(1), 96-119.

Bailey, D. B., Bruer, J. T., Symons, F. J., & Lichtman, J. W. (Eds.) . (2001). Critical thinking about critical periods . Baltimore, MD : Brookes.

Bruer, J. T., & Greenough, W. T. (2001). The subtle science of how experience affects the brain. In D. B. Bailey, Jr., J. T. Bruer, F. J. Symons, & J. W. Lichtman (Eds.), Critical thinking about critical periods (pp. 209–232). Baltimore, MD : Brookes.

Byers-Heinlein, K. and Lew-Williams, C., 2013. Bilingualism in the early years: What the science says. LEARNing landscapes, 7(1), p.95.

Gilmore, J.H., Knickmeyer, R.C. and Gao, W., (2018). Imag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brain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9(3), 123-137.

Hanson, J. L., Nacewicz, B. M., Sutterer, M. J., Cayo, A. A., Schaefer, S. M., Rudolph, K. D., ... & Davidson, R. J. (2015). Behavioral problems after early life stress:

1) 박수경과 이효림(2023)의 원고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제외하였음

contributions of the hippocampus and amygdala. Biological psychiatry, 77(4), 314-323.

Hutton JS, Dudley J, Horowitz-Kraus T, DeWitt T, Holland SK. Associations Between Screen-Based Media Use and Brain White Matter Integrity in Preschool-Aged Children. JAMA Pediatr. 2020;174(1):e193869. doi:10.1001/jamapediatrics.2019.3869.

Jones, S. M., & Zigler, E. (2002). The Mozart effect: Not learning from history.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55-372.

Leisman, G., Mualem, R. and Mughrabi, S.K., 2015. The neur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with the educational enrichment in mind. Psicología Educativa, 21(2), 79-96.

Liu, D., Diorio, J., Day, J. C., Francis, D. D., & Meaney, M. J. (2000). Maternal care, hippocampal synaptogenesi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rats. Nature Neuroscience, 3, 799 806 .

Meaney, M. J. (2004). The nature of nurture: Maternal effects and chromatin remodeling. In J. T. Cacioppo & G. G. Berntson (Eds.), Essays in social neuroscience (1-14). Cambridge, MA : MIT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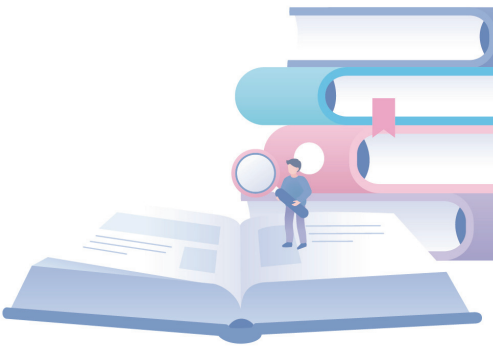
Parent, C., Zhang, T., Caldji, C., Bagot, R., Chapmagne, F. A., Pruessner, J., … Meaney, M. J. (2005). Maternal car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defensive respons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29-233.

Perry, B.D., 2002. Childhood experience and the expression of genetic potential: What childhood neglect tells us about nature and nurture. Brain and mind, 3(1), 79-100.

Tomopoulos, S., Dreyer, B. P., Berkule, S., Fierman, A. H., Brockmeyer, C., & Mendelsohn, A. L. (2010). Infant media exposure and toddler developmen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4*(12), 1105-1111. https://doi.org/10.1001/archpediatrics.2010.235

토 론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세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영유아의 사교육과 발달에의 영향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생각하며

최근 대치동의 조기 사교육 뉴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유아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도 놀라운데, 그 어린 나이에 시험을 치르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일부지역이라 할지라도 슬픈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생애 초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생애 초기 학습과 투자가 전 생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초기 투자, 뇌 발달의 중요성이 영유아들을 조기 교육과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면 영유아의 권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다. '識字憂患' 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성인들은, 부모들은 미래에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며 그리하는 것일까? 좋은 대학이 인생에선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인생을 잘 살아내는데 좋은 대학만이 필요한 것일까? 예전에는 교육이 백 년을 바라보고 계획했으나 이제는 10년 이내를 바라보는 계획으로 바뀐 느낌이다. 혹자는 10년도 아닌 3-5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을 바라보거나 예견할 수 없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의 눈으로 재단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욕망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2. 영유아 뇌 발달과 사교육

발제자는 영유아의 뇌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영유아의 뇌는 본능, 정서, 이성의 뇌 순서대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뇌 발달 순서를 생각하며 후뇌(뇌간)-중뇌(변연계)-피질의 순서로 단순하게 아래 표와 같이 도식화해 보았다. 가장 원시적인 뇌인 후뇌의 뇌간을 통해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조절하고 뇌간을 통해 정서적인 뇌 중추인 변연계가 나타났고 진화과정에서 사고하는 뇌인 신 피질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뇌 발달에는 시냅스의 생성(synaptogenesis), 가지치기(pruning), 수초화(myelination)라는 과정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냅스를 아래에 배치하였다. 즉, 영유아의 뇌 발달이 진화과정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정서적인 뇌로부터 사고하는 뇌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점인데, 사고와 정서 간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

한 신피질과 변연계의 연결로 우리는 사고하는 것에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예술, 경험, 심상에 대해서도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신피질로 인해 정서에도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신피질이 진화한 뿌리로서 정서적인 뇌는 신피질의 모든 부분과 엄청난 연결 회로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서적인 뇌는 사고하는 뇌 중추를 포함한 뇌의 나머지 부분의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 1〉 영유아의 뇌 발달 과정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후뇌							
	호흡, 심장박동, 혈압 및 체온조절 등 생존과 직결된 본능의 뇌!						
중뇌							
	동물, 감정, 본능의 뇌!						
전뇌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 가능, 이성적인 뇌!						
시냅스							
	매초 700개의 시냅스 탄생, 3세 정도 성인의 2배 시냅스 생성-〉 가지치기						

주: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자가 구성함.

또한 순차적인 뇌 발달의 이해를 통해 성인이나 양육자가 영유아를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본능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고 아이의 감정에 대한 반응적인 태도를 경험한 아이들은 순차적인 뇌의 성숙을 경험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도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어린 시기의 아이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된다고 보며 흔히 말하는 애착의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탐색을 위한 준비(Base for Exploration)를 시작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인지적인 자극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은 뇌발달을 저해하거나 고착시킬 수 있다.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아니, 어머니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부와 시험에 대한 정서와 사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질까? 우리사회의 학습이? 아니 교육이 아이들의 정서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프린스턴대 허준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한국 학생들이 좁은 범위에서 완벽하고 빨리 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넓고 깊게 하는 공부는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외국에 나와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혹시 우리의 경쟁적이고 정답 위주의 교육이 폭넓은 사고를 막고 유연성을 잃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영유아기는 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뇌 발달의 시기에 맞춰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뇌 발달의 핵심인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최소화하고 상호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연과 사람 등을 통해 다양한 감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

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의 지평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의 세심하고 다정한 손길과 눈길로 질문하고 답하도록 격려하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바로 이 시기의 필요한 학습이다. 학습과 교육(시험)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기의 베스트셀러로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소개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루게 된 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다정하게 협력해왔기 때문이며 과도한 경쟁, 서로에 대한 불신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삶을 잘 살아가는 데에도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육아를 하거나,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알고 있고 그런 다정한 공감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며,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토대일 수 있다는 것을.....이러한 다정함이 함께 하는 학습과 교육이 영유아에 필요한 사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영유아를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키우려면!

최근 AI와 CHATGPT의 발전으로 인간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기계가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학습하거나 더 잘 학습하여 인간의 기억과 학습을 대신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는 인간과 달리 감정이나 스트레스 등에 반응하거나 동요되는 경우도 적어 인간보다 많은 양의 업무와 작업 수행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앞서 정서적인 뇌와 사고적인 뇌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기계는 정서와 사고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니므로 감정과 정서를 가지게 되어 더 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앞서 뇌 발달의 특징에서 보았듯이 정서적인 뇌와 사고적인 뇌의 균형은 필요하며 EQ와 IQ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최근 연구들은 정서적 기술과 인지적 기술을 통해 자기 규제적인 능력이 더 발달되어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 국가의 공동 연구에서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사건 사고 뉴스와 영화에서 마주칠 수 있는 마약과 폭력 및 살인 등이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어린 시기부터 발달 지체, 문제행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일찍이 성인의 따듯한 돌봄과 사랑, 감정과 정서의 충분한 교류 없이 성장하게 된 것은 아닐까? 배우는 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학습과 교육으로 내몰리고 압박을 받은 후 뒤늦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끝으로 SBS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저자에게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똑똑한 것과 다정한 것 가운데 어떤 게 진화적으로 더 중요한 재능인지 질문한 인터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정함을 '따뜻함'이라고 정의하고, 똑똑한 것을 무엇인가

에 '능숙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두 가지 다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능력이지만,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기필코 '따뜻함'입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것보다 따뜻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능력이 있는데 차가운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지만 따뜻함이 있어야 자신이 가진 능력도 제대로 표출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적영역 아동 돌봄서비스 고도화 현안 과제 (충남지역 중심으로)

안세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1. 공적 영역의 아동 돌봄서비스 현안 과제

영유아 사교육과 뇌발달 연구(이효림, 2023)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의 연구대상이 돌봄서비스 수행자 중심의 연구에서 돌봄서비스 직접 수혜자인 영유아 아동 중심의 관점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웠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제언의 포괄적 논제라고 한다면 공적 돌봄서비스의 고도화 측면으로 이는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중심성 강화 영역을 세부 중장기 정책 목표로 구체화하여 가져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자 중심성 강화 영역은 선언적 수준에서 실질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민주적인 공동생산의 가치 실현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돌봄 서비스의 품질관리 개선 측면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최저품질기준의 모니터링과 서비스 공급자 보호를 통한 품질관리 전담기구 역할 강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서비스 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제공자 역량강화와 성과관리 책임부여 필요성 측면 등으로 공적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 충남 공적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현황(2020년 기준)

충남의 돌봄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자녀 연령별로 돌봄 요구를 살펴보면, 충남 도내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현황에서 전체 아동 연령대에서 '필요함'이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97.9%,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 95.6%로 나타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공적 돌봄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안세아, 2020). 가장 선호하는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상이한데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주거지 인근 공동공간(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등)이 70.2%로 선호하고,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초등학교 내 교실이 67.7%로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충남여성가족연구원, 2020).

긴급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도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코로나19 상황 속 자녀 돌봄 공백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한 결과, 아동(7세 이하)는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이 33.3%로 나타나고 아동(13세 이하)는 돌봄 공백 주요 해결방법으로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하여 이용이 29.4%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 속 자녀 돌봄 공백

해결방법'에서 연령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p〈0.1). 이 가운데 공적돌봄서비스와 사교육 병행 23.3%이고 사교육 기관 이용 10.3%로 전반적인 사교육 기관 이용률은 33.6%(공적돌봄서비스와 사교육 병행 23.3% + 사교육 기관 이용 10.3%)로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인 가족 내 돌봄 이용률 25.0%보다 약 13.6% 높은 사교육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충남여성가족연구원, 2020).

〈표 1〉 충남 도내 자녀 돌봄 공백 해결방법(2020년 기준)

단위: 명, %

자녀 돌봄 공백 해결방법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	공적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하여 이용	사교육 기관 이용	자녀 혼자 (형제자매 끼리) 지냄	전체
전체		16.4%	**25.0%**	19.0%	**23.3%**	**10.3%**	6.0%	100.0%
	아동(7세 이하)	22.9%	**33.3%**	20.8%	**14.6%**	**6.3%**	2.1%	41.4%
	아동(13세 이하)	11.8%	19.1%	17.6%	**29.4%**	**13.2%**	8.8%	58.6%

나. 충남 공적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 필요 사항(2020년 기준)

도내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1순위)은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접근성(집과의 거리)이 22.9%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생각하고,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가 39.7%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영역으로는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지역내 돌봄기관(예를 들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확대가 27.1%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공적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지원이 55.9%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충남여성가족연구원, 2020).

도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아동(7세 이하)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50.0%,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31.3% 순으로 나타나고 아동(13세 이하)는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35.4%,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비용이 저렴해서 18.5% 순으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충남여성가족연구원, 2020).

2. 관련 정책 과제

충남 도내 공적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2020) 충남에서 돌봄 공백 해소 방안으로 이용하는 돌봄서비스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7세 이하) 100.0%, 아동(13세 이하)

95.6%로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1순위)은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접근성(집과의 거리)이 22.9%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생각하고,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가 39.7%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영역으로는 아동(7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지역내 돌봄기관(예를 들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확대가 27.1%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아동(13세 이하)를 둔 보호자는 공적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지원이 55.9%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돌봄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돌봄서비스 고도화 체계 필요: 시군별, 정책대상 연령별, 돌봄유형별

이처럼 충남 공적 돌봄서비스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시군별, 정책대상 연령별, 그리고 시간대별, 긴급돌봄 등으로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현황이 상이하고 미흡함에 따라 공적 돌봄 의존도에 비해 공적 영역의 돌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적돌봄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는 양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서비스 양과 질적 측면의 정책마련이 구체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남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돌봄 여건이 상이함에 따라 돌봄 요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통적인 시간 확대 돌봄 요구에 있어서도 도시는 주중 이용시간 확대가 크고 농촌은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도시지역은 이용대상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프로그램 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기초 단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돌봄 안전망 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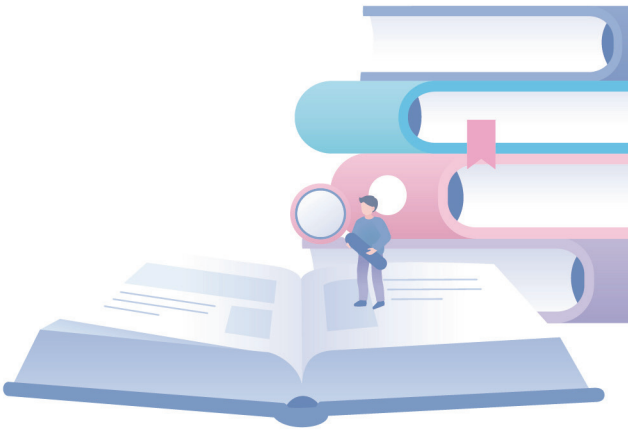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요구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요구가 돌봄공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대에 대한 시간연장형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는 돌봄제공 인력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다양성 및 질 개선, 돌봄교사의 전문성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아동 보호 차원의 돌봄 서비스에서 다양한 심리 정서적 심신발달 활동 및 교육을 포괄하는 돌봄으로 서비스 고도화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차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충남의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종합계획 수립(2023~2027)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돌봄 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가운데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 돌봄 시간 정책 확대(91.6%)'와 '제도적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틈새 돌봄 서비스 확대(91.5%)'로 확인되며,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구의 양육 및 교육지원과 양육 환경 개선 추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돌봄 추진단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의 운영시간 연장과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돌봄 정보 제공 차원의 추진계획(도비 5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공모전 결과 보고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 팀장



2023년 육아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

이재희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적 및 개요

❖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신규 육아정책 발굴(제3회 육아정책공모전)

❖ 공모일정: 2022년 7월 19일 ~ 8월 31일까지

❖ 육아정책연구소 기본/일반과제와 연계하여 수행함

✓ 주제1 :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Ⅱ) : 영유아 교육 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 주제2 :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 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Ⅱ) : 남성의 돌봄권 중심으로
✓ 주제3 : 유아교육·보육(ECEC) 정책 성과와 과제(Ⅰ): 국정과제 이행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

심사 방법

❖ 제출 제안서: 32건

주제1	주제2	주제3
9건	8건	15건

❖ 심사자: 각 연구과제 책임자 3명 + 외부전문가 3명

❖ 평가 내용

✓ 연구과제와 관련성, 사업명확성, 제경 시의적절성, 구체성, 사업과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100점으로 평가

육아정책연구소 3

심사 결과

순위	제안명	수상
1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육아알리미' 운영 (주제3)	최우수상
2	아빠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주제2)	우수상
3	너.나.들.이 > 서로를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주제1)	우수상
4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제"(주제2)	우수상
5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모퉁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주제1)	장려상
6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주제3)	장려상
7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주제3)	장려상
8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주제1)	장려상
9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주제2)	장려상

육아정책연구소 4

수상작(최우수상)

사업명	맞춤형 육아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내 서비스분야-육아알리미' 운영(주제3)
사업의 제안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모들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가족들이 늘고 있음 ○ 아이 양육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기별 육아 노하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양육정보를 찾기 위해 각각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비서비스내에 육아알리미를 도입하여 양육정보를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음. ○ 가정방문서비스 보다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육아 알림서비스를 통해 초보부모가 아이의 발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함. ○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개월별 육아노하우, 발달정보와 평균체중, 놀이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놀아줘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육아 한마디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사업의 지원 내용	○ 영유아 발달/건강 정보 - 개월별 발달 정보 - 표준 체중 및 몸무게 안내 - 영유아 건강검진 및 달빛병원 안내 -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방법 안내(고열일 경우, 열경기, 높은대서 떨어졌을 때 등)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검진 및 평가 안내 ○ 육아 노하우 및 육아스트레스 관리방법 등 - 개월별 놀이방법 - 육아 응원의 메시지, 아동권리 안내 - 기저귀 가는 법, 아기 목욕시키는 법, 이유식 만들기, 아기변 상태 등 - 육아휴직 및 아빠육아법 등 안내 - 육아스트레스 대응방법 - 육아전문가와 상담&칼럼(분야별 전문가 칼럼 운영) ○ 지역 맞춤형 육아정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찾기 - 관할 구 육아정보 - 관할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안내 - 장난감 도서 대여, 돌상 백일상 대여 안내 등 - 지역 놀이터, 미술관, 박물관, 체험실 등 정보 - 시간제보육실,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안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수상작(우수상1)

사업명	아빠육아, 출산준비부터 함께 해요. (주제2)
사업의 제안 배경	○ 자녀 출산을 앞둔 남성에 대한 지원 필요 - 현재 출산을 앞둔 산모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혜택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출산을 준비 중인 남성을 위한 지원은 부족하거나 없는 수준임. 특히, 근로활동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준비과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육아 서비스 인식 제고 - 남성의 경우 지역 내 육아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낮았음. 남성도 출산 준비과정에서부터 육아참여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 평등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부족 - 맞벌이 부부 증가, 가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하여 평등한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 시키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지원 내용	○ '예비 아빠 산전 휴가' 제도 도입 -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남성에게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산 이전까지 7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아빠 산전 휴가' 제도를 도입함. ○ '예비 아빠 건강키움 바우처' 제공 - 예비 아빠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지원금을 제공하여 남성에게도 건강한 출산 준비를 지원함. - 바우처 내용은 출산 준비 기간 동안 거주 지역 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용 가능함. ○ 가전제품대여 서비스 - 출산 준비 가정에게 가전제품대여 서비스 제공 - 기간: 출산 준비 전(임신확인 이후) ~ 생후12개월 - 품목: 로봇청소기, 젖병소독기, 식기세척기 등(택1) - 서비스 신청 시,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교육'을 제공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

수상작(우수상2)

사업명	너.나.들.이 〉 서로를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사업의 제안 배경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어린이집의 증가, 폐원 위기 봉착 - 대한민국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영유아 수 대폭감소 - 저출산으로 인해 휴·폐원하는 보육기관 증가 - 어린이집의 규모가 점차 소형화 되어가고 있음〉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단체적용이 되지 않아 현장학습에 대한 부담증가, 체험제한 ○ 다양한 또래와 어울려 놀이할 기회와 경험이 부족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혼합연령 증가, 남녀 비율 파괴, 놀이할 친구가 부족해지는 교실 〉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연령별 수업지원의 고충, 놀이 확장의 한계가 발생하게 됨 -영아의 경우 발달 단계상 놀이할 또래가 없어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분히 놀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나 유아기에는 또래와 놀이하는 경험이 중요함 〉그러나 한 교실 안 유아 수가 급감하면서 다양한 놀이와 활동진행이 어려워짐 특히 게임, 동극, 신체 표현 등의 대그룹 활동 진행이 어려움
사업의 지원 내용	○ 너나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 - 정기적으로 만남 시간 (예:프렌즈데이 A어린이집 유아들이 B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인사하고 알아가는 시간 만들기) - 서로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 교실 안에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 경험 ○ 너나들이: 안부 묻는 시간 - 유아들이 만든 작품이나 프로젝트 주제 마무리 시 도출된 결과물을 다른 어린이집에 소개하기(ex: A 어린이집에서 함께 만든 그림책을 B 어린이집에 우편물로 발송 하기 -〉 B 어린이집은 편지나 온라인을 통해 피드백 주기) - 정기적으로 온라인 만남 갖기 - 카톡 영상전화나 ZOOM을 통해 만나 안부를 묻고 친교의 시간 갖기 ○ 너나들이: 함께 놀이하는 시간 - 숲 체험, 키즈카페, 주제 관련 견학지 등에서 만나서 함께 놀이함 (현장학습을 단체 적용받을 수 있음) - 생일 축하 시간 함께하기 〉매달 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생일파티를 두 기관이 함께하여 더 풍성한 파티를 경험해보기

육아정책연구소 7

수상작(우수상3)

사업명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제"
사업의 제안 배경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됨 - 한국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64.6%로 낮으며 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2023. 7. 24. 인출), 결혼 후에도 아내보다 남편의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남성의 임금은 가계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지출 비용은 늘어나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의 소득보다 줄어들게 됨. 따라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많았던 가정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현재 아버지 육아휴직 정책은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대하여 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CC2020A003&conn_path=I2 (2023. 7. 24. 인출) 이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남성 육아휴직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보여줌.
사업의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1개월 임산부 및 산모 대상 반찬 배달 서비스 - 현재, 임산부 대상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이 운영 중으로 임산부들의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이를 확장 지원하기 위해 출산 전후 가장 체력적 소모가 큰 시기인 출산 전후 1개월내에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영양도가 높고,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완제품 반찬을 1주/2주/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직접적 배달 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내에 시장 안 소상공인 반찬 가게 바우처 발급 등을 통해서, 정책 예산을 합리화 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구체화가 가능함. ○ 둘째 이상 출산 산모 대상, 다른 자녀 돌봄 지원사업 -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돌보미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신생아 돌봄과 산모돌봄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음 - 그러나, 둘째 이상 산모에게는 본인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의 부담도 크지만, 기출산 자녀를 위한 절대적인 돌봄시간, 심리적 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신생아 돌봄 뿐 아니라, 기 출산 자녀에 대한 1) 가정내 돌봄,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하원 돌봄 서비스, 3) 놀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육아정책연구소 8

수상작(우수상3)

사업명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제"(주제2)
사업의 제안 배경	○ 남성대비 여성임금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게 됨 - 한국은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이 64.6%로 낮으며 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2023. 7. 24. 인출), 결혼 후에도 아내보다 남편의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남성의 임금은 가계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지출 비용은 늘어나게 되나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의 소득보다 줄어들게 됨. 따라서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많았던 가정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현재 아버지 육아휴직 정책은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떨어짐 -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에 대하여 기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CC2020A003&conn_path=I2 (2023. 7. 24. 인출) 이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남성 육아휴직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보여줌. ○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자녀돌봄 정책이 필요함 - 자녀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신혼부부들 중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육아에 대해 더이상 여성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동시에 남성의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남성의 자녀돌봄과 육아휴직 등은 경제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남성의 커리어와 승진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 즉, 남성의 직업이나 직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동시에 남성의 자녀돌봄으로 인하여 승진이나 성과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통하여 현재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모두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에서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기여하도록 함.

수상작(우수상3)

사업명	부담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이는 "아빠 자녀돌봄 맞춤제"(주제2)
사업의 지원 내용	○ 직장 및 직업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녀돌봄 선택 맞춤제 실시 - 아래의 ①~④의 선택사항 중 상황에 따라 직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①~③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나, 여건이 불가능할 경우 ④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구분		세부 내용	필요 사항
①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함. 단, 자녀의 방학 또는 질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함	휴직, 휴가, 유연근로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승진, 고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지침 마련
② 가족돌봄휴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었을 경우 월 1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누적 가능, 연 12일 제공)	
③ 유연근로제	㉠	시차출퇴근제(07:00~20:00 중 8시간 근무),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중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선택	
	㉡	자녀의 병원 진료 및 긴급 사항으로 인하여 급히 귀가해야 할 경우, 공백 시간만큼 재택근무로 가능하도록 함	
④ 돌봄지원	㉠	돌봄인력 지원: 아버지가 위의 휴직, 휴가, 유연근로 중 모두 불가능한 직장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주 8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재보다 세제 혜택 강화	

수상작(장려상 1)

사업명	장애아 및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모해('모퉁이를 비추는 해'라는 뜻의 순우리말) (주제1)
사업의 제안 배경	○ 영유아들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속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기질 등 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장애를 진단하기 어려움 ○ 장애위험 영유아의 문제되는 행동을 감소하고 긍정적인 사회활동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교사의 조기발견과 중재가 절실히 필요함 ○ 아이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에 여러 어려움을 울음이나 떼를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초보 부모에게 그러한 시그널을 해석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사례를 알 수 없어 육아에 어려움을 겪음 ○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미취학 장애아동 2명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는 사항이 개정되지 않아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되어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됨
사업의 지원 내용	○ '장애아보육료'를 '장애아보육료'와 '발달지연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함. - 그러나 '장애'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꺼리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아 등록을 한 아동에게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발달지연아동을 위한 보육료'로 명칭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장애통합어린이집 선정 기준 완화와 발맞춰 반구성 및 전담교사 배치 기준 변경 또는 완화 -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2를 원칙으로하고,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1명의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을 위한 통합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통합반은 장애기본반과 일반아동반을 한 공간에서 보육하는 통합반 -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 1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 ○ 장애아 또는 장애위험아동의 통합반 운영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사업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식교육을 필수 부모교육으로 지정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

수상작(장려상 2)

사업명	비혼가족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 확대(주제3)
사업의 제안 배경	○ 비혼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육아지원 확대 - 결혼을 하지 않지만 비혼 남녀의 동거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해야함. - 다양한 가족 제도를 인정하여 부부지원이 아닌 가정 전체(자녀지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률 증가. - 비혼가족의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 동거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및 양육지원 - 결혼 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동거가족에게 사회적 권리를 인정. - 법적, 행정적 제도를 정비하여 권고 조항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동거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비혼가족이 자녀가 출생하면 결혼한 가족에 준하는 사회적 제도(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친화적인 양육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2

수상작(장려상 3)

사업명	근로자 자녀 의료보육거점센터 설립(주제3)
사업의 제안 배경	○ 아픈 영유아의 의료적 돌봄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어디에도(지역) 없고 어느 곳(정부 부처)에도 없음. - 맞벌이 지원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아픈 아이의 의료적 지원임. - 매일아픈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 아픈 아이들의 부모를 소환하여 맞벌이 부모의 퇴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 ○ 보육교육기관에서 가끔 아픈 아이들이 긴급하게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육 거점센터 필요. - 기관에 있는 영유아가 갑자기 아프거나 열이 나면 일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 중 한 명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과 동행하여 거점의료기관(지역 내 지정 소아과)으로 의료보육 이동 차량으로 지정된 택시 및 공유교통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의료적 보육센터 설립이 필요함. - 출근해야 할 아침에 아이가 아픈 경우 의료보육 거점센터에 보육신청하여 당일 보육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 맞벌이 자녀들을 보육 교육 기관에서 아픈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동의 하에 의료보육거점 센터로 이송. - 지역 내 지정된 소아과 인근(의료진이 바로 진료가능한 거리) 및 소아과 내 의료보육거점센터로 각 기관의 간호 인력과 동행 이동하여 상시로 의료진이 진료 후 응급할 경우 부모 소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단순 약 처방으로 처치 가능하면 거점센터에서 보육 후 맞벌이 부모 퇴근 후 자녀 인계. ○ 각 기관에 간호 인력 필수 배치 - 영유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 및 남성등 간호사인력등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 배치하고 급여 및 인사관련 통일 관리체계 지원. - 각 기관에서 간호인력이 평상시 아이들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형성. ○ 의료보육거점센터로 이송을 위한 이동수단 지원. - 미리 지정된 택시 및 공유교통수단을 통해 각 기관 및 가정에서 신청시 즉시 우선 배차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동수단 외부에 의료보육지정차량 안내판 설치지원. - 정부부처 및 시군구 예산을 통해 이송료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및 우선적용.

수상작(장려상 4)

사업명	아이돌봄서비스 공백 ZERO, 지역 내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활용한 긴급돌봄 신청
사업의 제안 배경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거나 감염병 증상을 보일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어린이집에서는 해열제를 비치할 수 없으며, 투약의뢰서를 받고 투약을 해야 해 열이 오르는 경우 바로 대응하기 어려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직장 내 업무로 인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많음. ○ 바로 어린이집에 올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교육보육기관에서 긴급돌봄보육 서비스를 신청해 환아의 1:1 케어를 가능하게 하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업의 지원 내용	○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 구성 - '자린다', '째깍악어' 등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처럼 보육교사 인력풀 어플을 만들어 현재 휴직 중인 보육교사 인력을 활용해 긴급돌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보육교사 인력풀 구성 및 인력비 지원 - 기관과 유휴인력 보육교사를 연계해주는 어플 구성 비용과 지원하는 인력의 비용을 지원 ○ 어플을 통해 기관과 유휴인력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환아의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 부모의 의사에 따라 병원 방문 또는 어린이집에서 케어 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어린이집에 도착할 때까지 병원 방문, 투약, 낮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에서 무엇을 지원하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

수상작(장려상 5)

사업명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즐기기(주제2)
사업의 제안 배경	○ 양육에 서툰 아버지를 위한 일상 활동 제공 -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 - 어머니 위주의 양육방식에 아버지가 참여하기 불편한 상황 존재
사업의 지원 내용	○ 아버지 양육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및 지역화폐 제공 - 지역 내 영유아가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제공 (어린이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키즈카페, 어린이박물관 등) - 지역화폐 제공 (어린이를 위한 물품구입-문구 및 완구 구입)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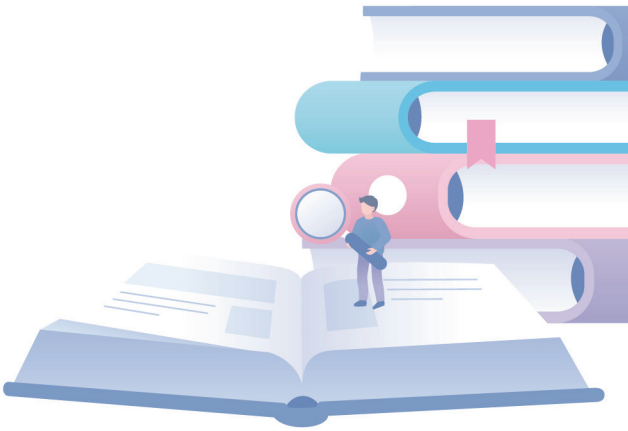
15

감사합니다

16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고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 팀장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이슈 분석

2022. 1.~2023. 9.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
김나영

Contents

I. 조사 설계
II. 분기별 조사 결과
III. 종합

I.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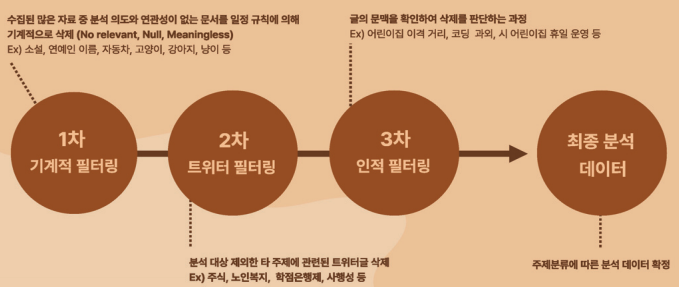
개요

- 본 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포털인 네이버 뉴스 및 트위터 게시글(버즈)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조사 방법	• 버즈 메트릭스 Buzz Index system을 이용한 온라인 Buzz 수집 및 분석
수집 사이트	• 네이버뉴스, 트위터
수집 기준	• 원글
수집 키워드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돌봄, 유보통합 등
수집 기간	• 22.01 ~ 23.03 (매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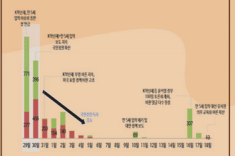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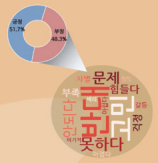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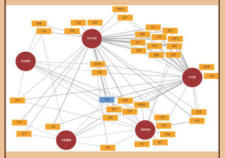
수집/분석 문서수

-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와 분석 시간 단축을 위해 분석 대상과 연관성이 없는 문서를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기계 정제 진행
- 2차로 분석 대상이 아닌 트위터 글(주식, 노인복지, 학점은행제 등)을 삭제함
- 3차로 글의 문맥을 확인하여 분석에 불필요한 트위터 글(이격 거리, 과외 홍보 등)을 삭제함
- 그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돌봄, 유보통합 등에 대한 분석 데이터 확정



데이터 분석 방법

- 본 조사에서는 빅데이터 자료 분석 방법으로 크게 3가지를 활용하였음
- 데이터 건수에 기반해 트렌드와 이슈를 확인 가능한 '문서량 추이 분석', 긍부정 키워드에 따른 '감성분석', 특정 주제들 사이의 중심·개별 키워드를 파악하는 '네트워크 분석' 을 활용함

분석 방법	문서량 추이 분석	감성 분석	네트워크 분석
설명	수집 문서의 건수를 기반으로 문서 발생량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확인 가능 - 문서량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변화량에 따른 이슈 분석	특정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평판이나 성향을 파악하며 실제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	특정 주제들 사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연관 키워드, 개별로 나타나는 연관 키워드를 파악하여 이슈별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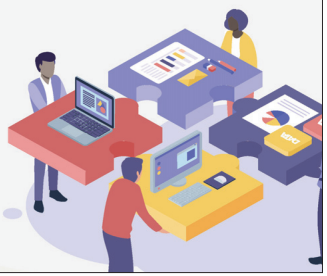
II.

분기별 조사 결과

- 유치원/어린이집
- 아동학대/아동돌봄
- 유보통합

육아정책연구소

22년 1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영어', '교사', 어린이집은 '선생님', '확진'
- 유치원은 '영어 사교육 고민', 어린이집은 '코로나 보육 공백' 우려가 주로 나타났으며, 두 기관 공통으로 '코로나 자가검진 후 등원 반발',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언급이 도출됨

✓ 영어 사교육 고민

✓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필요

✓ 사립 유치원 원비 비쌈 및 공립 유치원 확충 필요

✓ 유치원 원격 수업 준비 부족

✓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반발

✓ 교육부 폐지 반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영어	11	도시락
2	교사	12	급식
3	교육	13	단체
4	수업	14	학습
5	검사	15	키트
6	병원	16	대통령
7	하원	17	발달
8	사립	18	법
9	코로나	19	하원
10	병설	20	교육부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8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영어', '교사', 어린이집은 '선생님', '확진'
- 유치원은 '영어 사교육 고민', 어린이집은 '코로나 보육 공백' 우려가 주로 나타났으며, 두 기관 공통으로 '코로나 자가검진 후 등원 반발', '보육교사·유치원교사 처우 개선' 언급이 도출됨

✓ 코로나 보육 공백 고민

✓ 보육교사 처우 및 역량 부족 문제

✓ 자가검진 후 등원 반발

✓ 부적절한 코로나 키트 배포

✓ 보육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 가중

✓ 외국 국적 유아 어린이집 지원 부족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선생님	11	센터
2	유치원	12	시설
3	확진	13	환경
4	키트	14	보육교사
5	보육	15	영어
6	코로나	16	이재명
7	자가	17	휴원
8	출근	18	정책
9	회사	19	수업
10	하원	20	지원금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9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예방', 아동돌봄은 '센터', '장애' 등 발생
- 아동학대는 '부실한 아동학대 신고 및 감독 체계', '관련법 강화 필요', 아동돌봄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장애 아동돌봄 지원 미비' 등의 언급이 나타남

✓ 아동학대 관련법 및 공무권한 강화 필요

✓ 무의미한 아동학대 신고, 부실한 감독체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비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청 제한 논란

✓ 아동학대 예방교육 효용성 부족

✓ 영화 등에서의 아동학대 표현 문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신고	11	영상
2	예방	12	징역
3	인권	13	이재명
4	경찰	14	방치
5	가해자	15	고소하다
6	성범죄	16	유기
7	영화	17	시설
8	법	18	미국
9	검사	19	적발
10	양형	20	검찰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1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예방', 아동돌봄은 '센터', '장애' 등 발생
- 아동학대는 '부실한 아동학대 신고 및 감독 체계', '관련법 강화 필요', 아동돌봄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 '장애 아동돌봄 지원 미비' 등의 언급이 나타남

✓ 아동돌봄 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필요

✓ 장애 아동돌봄 시 안전 문제 발생, 돌봄 지원 미비

✓ 양질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여가부 폐지 시 아동돌봄 예산 및 정책 파기 우려

✓ 중년세대 아동돌봄 서비스 긍정 반응

✓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아동돌봄 공백 문제 발생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센터	6	신청
2	장애	7	정책
3	교육	7	중년
3	서비스	8	대선
3	지역	8	사업비
3	공약	8	시설
3	보육	9	맞벌이
4	사업	9	무상
5	공모	9	코로나
5	복지	10	돌보미

* 연관 키워드 명칭은 동일한 의미로 통합하여 수집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11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정책', '교육', '교육부' 등이 발생
- 유보통합은 '유보통합 주관 부처 통합-강화', '유보통합 베끼기 공약 비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격차' 문제가 주로 언급

✓ 유보통합 실현 위한 부처 통합, 교육부 강화

✓ 유보통합 구체적인 방안 부족, 베끼기성 공약 비판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격차 문제 선해결

✓ 유보통합 전 사교육비 부담 선해결 필요

✓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교사 처우 및 부모 부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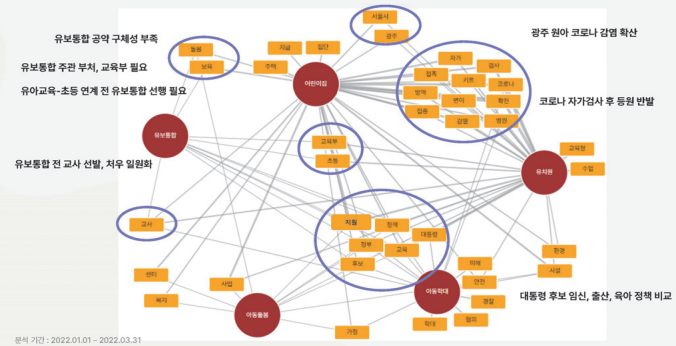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정책	7	당선
2	교육	8	돌봄
2	교육부	8	부처
2	후보	8	양육
3	공약	8	통합
4	보육	9	개혁
5	실현	9	교육열
6	윤석열	9	대통령
7	교사	10	이재명
7	교원	10	교육비

* 최다 등장 키워드 10개 이상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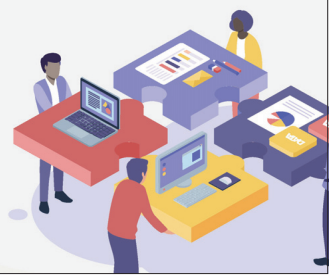
- 22년 1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이슈는 '대통령 후보 육아 정책 공약', '서울시 육아 지원 사업', '코로나 자가진단 후 등원 논란'이 도출됨
- 유보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이슈는 '교사 선발 및 처우 일원화', '유아교육-초등 연계 전(前) 유보통합 실행', '교육부 유보통합 주관 부처화'가 나타남



분석 기간 : 2022.01.01 – 2022.03.3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2년 2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연관 키워드는 '영어', '등원', '병설', 어린이집은 '교사(선생님)', '등원', '국공립' 등이 도출
- 동기간 유치원은 '영어 사교육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두 기관 모두 '노로바이러스 확산' 언급이 나타남

✓ 비싼 비용 대비 효용성 낮은 영어유치원, 과도한 사교육 문제

✓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민 (등원 돌보미 부족 등)

✓ 전문성 낮은 육아 급식 문제 (맵기 조절 실패)

✓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 논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갑질), 원장 비리 문제

✓ 노로바이러스 확산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영어	11	교육청
2	등원	12	민주당
3	원장	13	종일반
4	병설	14	교육부
5	하원	15	공립
6	사립	16	미취학
7	급식	17	윤석열
8	교육법	18	도교육청
9	프로그램	19	문재인
10	센터	20	노로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연관 키워드는 '영아', '등원', '병설', 어린이집은 '교사(선생님)', '등원', '국공립' 등이 도출
- 동기간 유치원은'영어 사교육에 대한 고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두 기관 모두 '노로바이러스 확산' 언급이 나타남

✓ 보육교사 1인당 노동 과다, 직장내 괴롭힘

✓ 보육교사 낮은 임금 문제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문제

✓ 지자체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발족

✓ 오래된 어린이집 환경

✓ 노로바이러스 확산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선생님)	11	복지
2	등원	12	시설
3	원장	13	경기도
4	어린이날	14	백신
5	국공립	15	교직원
6	보육교사	16	영통구
7	코로나	17	인천
8	모니터링	18	확진
9	환경	19	노로
10	서울시	20	협약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정인이' 아동 돌봄은 '센터', '부천시' 등이 도출
- 동기간 아동학대는 '자녀살해 부모 가중처벌 검토', '강력 아동학대범 처벌', 아동돌봄은 '부천시, 경기도 아동돌봄 사업', '경기도 청소년 부모 돌봄 지원 논란', '김승희 장관 돌봄 예산 삭감' 등 발생

✓ 자녀살해 부모 가중처벌 검토

✓ 정인이 사건, 청주 계부 사건 등 강력 아동학대범 처벌

✓ 아동학대특례법(정인이법) 제정에도 줄지 않는 아동학대

✓ 검수완박으로 인한 아동학대 수사 제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신고	11	특례법
2	사건	12	어린이날
3	예방	13	검찰
4	살인	14	선고
5	정인이	15	청주
6	수사	16	성범죄
7	캠페인	17	계부
8	어린이집	18	개정안
9	법률	19	입양아
10	인권	20	미국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정인이' 아동 돌봄은 '센터', '부천시' 등이 도출
- 동기간 아동학대는 '자녀살해 부모 가중처벌 검토', '강력 아동학대범 처벌', 아동돌봄은 '부천시, 경기도 아동돌봄 사업', '경기도 청소년 부모 돌봄 지원 논란', '김승희 장관 돌봄 예산 삭감' 등 발생

✓ 부천시 아동돌봄 센터 정보 공유

✓ 코로나로 인한 아동돌봄 시설 지원 타격

✓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 경기도 청소년부모 600가구에 10조 지원 갑론을박

✓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 과거 아동돌봄 예산 삭감 논란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센터	7	복지부
2	부천시	8	김승희
3	시설	8	반대
4	공동체	9	간담회
4	사업	9	감액
5	경기도	9	공약
6	복지	9	국회
6	삭감	9	논란
6	장관	9	프로그램
6	정책	9	후보

* 협의어 통합한 연관 키워드 수 언급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정책', '교육', '교육부' 등이 도출됨
- 동기간 유보통합은 '유보통합 주관 부처 통합-강화', '유보통합 베끼기 공약 비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격차' 문제 주로 언급

✓ 유보통합 실현 위해 의무교육, 통합교사 제도 신설 희망

✓ 윤석열 정부 부모급여, 유보통합 추진

✓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완화 안되

✓ 세종시 유보통합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추진

✓ 유보통합에 유치원 의견 반영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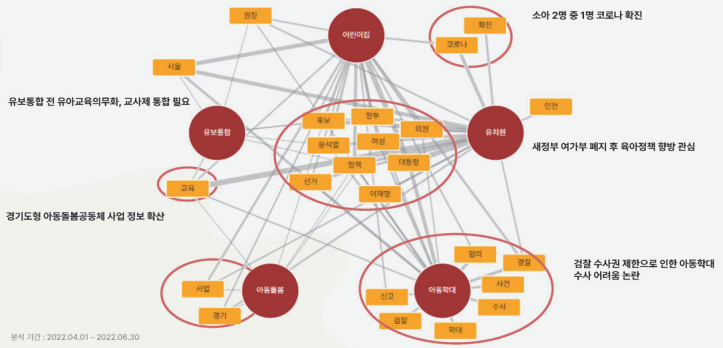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	5	안철수
2	윤석열	5	양육
3	교육	5	의무교육
3	급여	5	일원화
4	담론	-	-
4	보육	-	-
4	보육교사	-	-
5	4년제	-	-
5	복지	-	-
5	세종	-	-

* 협의어 통합한 연관 키워드 수 언급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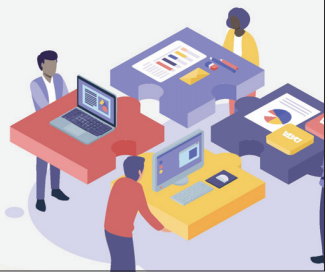
- 22년 2분기 육아정책 전체 공통 이슈는 '새정부 여가부 폐지 후 육아정책 향방'이 도출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이슈는 '소아 중심 코로나 확산 지속'이었으며, 유보통합, 어린이집, 유치원은 '유아교육 의무화, 교사제도 일원화'가 도출됨



분석 기간 : 2022.04.01 – 2022.06.30

육아정책연구소

22년 3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학교', '초등', 어린이집은 '교사', '유치원' 등 발생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만 5세 입학' 우려가 나타남
- 유치원은 '영어 사교육 질적 향상 필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확대 필요', '어린이집 국공립화 반대' 등 의견 나타남

✓ 만 5세 입학 찬반, 유치원 의무교육화 필요

✓ 영어 사교육 질적 향상 필요

✓ 사립유치원 축소, 공립유치원 확대 필요

✓ 유치원 지원 예산 감소 우려

✓ 사립 유치원 교원 휴직률 낮아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학교	11	병설
2	초등	12	급식
3	영어	13	코로나
4	교사	14	공립
5	학년	15	센터
6	입학	16	교육청
7	원장	17	프로그램
8	등원	18	윤석열
9	사립	19	종일반
10	하원	20	민주당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학교', '초등', 어린이집은 '교사', '유치원' 등 발생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만 5세 입학' 우려가 나타남
- 유치원은 '영어 사교육 질적 향상 필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확대 필요', '어린이집 국공립화 반대' 등 의견 나타남

✓ 만 5세 입학 반대, 국공립 및 병설 어린이집 확충 필요

✓ 보육료 지원 확대 필요

✓ 어린이집 국공립화 반대 (일부)

✓ 경기도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다수

✓ 코로나 보육 공백으로 인한 가정 보육 부담 가중

✓ 어린이집 이물질 급식 문제 발생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	11	복지
2	유치원	12	발달
3	등원	13	확진
4	초등	14	시설
5	교육	15	경기도
6	보육	16	사업
7	원장	17	급식
8	국공립	18	인천
9	영어	19	인천
10	보육교사	20	병원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수사', 아동돌봄은 '윤석열', '정책'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소급적용', '가해자, 피해자 대면문제 개선 필요', 아동돌봄은 '윤석열 정부 아동돌봄 지원 축소 우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등의 언급이 나타남

✓ 아동학대 공소시효 소급 적용

✓ 아동학대 가해자, 피해자 대면 문제 개선 필요

✓ 민주당 검수완박으로 아동학대 수사 난항 우려

✓ 아동학대 예산 감축 우려

✓ 부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발생

✓ 장애아동 돌봄 방치 문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신고	11	경남
2	수사	12	경찰청
3	이재명	13	예방
4	사건	14	선고
5	윤석열	15	법률
6	부산	16	어린이집
7	민주당	17	재판부
8	국회	18	특례법
9	인천	19	장애
10	법무부	20	인권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신고', '수사', 아동돌봄은 '윤석열', '정책'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공소시효 소급적용', '가해자, 피해자 대면문제 개선 필요', 아동돌봄은 '윤석열 정부 아동돌봄 지원 축소 우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등의 언급이 나타남

✓ 윤석열 정부 아동돌봄 지원 강화

✓ 여가부 폐지로 아동돌봄 지원 축소 우려

✓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 광명시 돌봄센터 확대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지원

✓ 경기도 돌봄 간담회 실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윤석열	11	복지
2	정책	12	국회
3	센터	13	경기도
4	서비스	14	예산
5	장관	15	프로그램
6	코로나	16	공동체
7	지지율	17	복지부
8	논란	18	공약
9	서울	19	간담회
10	시설	20	예산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교육부', '입학', '초등' 등이 발생
- 유보통합은 '유치원 공교육화(무상화) 필요', '인력양성에만 초점 맞춘 유보통합 정책 비판', '유보통합 법적 해결 어려움' 등이 주로 언급

✓ 유치원 공교육화(무상화) 필요

✓ 만 5세 입학 정보 공유

✓ 인력양성에만 초점 맞춘 유보통합 정책 비판

✓ 유보통합 실현 위한 부처 통합

✓ 유보통합 관련 교육부 및 복지부 갈등

✓ 유보통합 법적 해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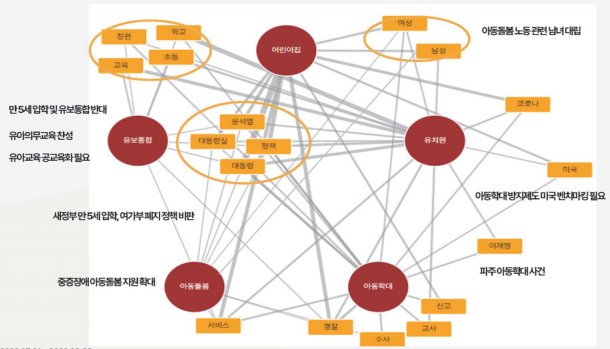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부	11	보육교사
2	입학	12	유아학교
3	초등	13	의무교육
3	교사	14	장관
4	만5세	15	취학
4	학제개편	16	만 5세
4	복지부	17	위원회
5	보육	18	윤석열
5	공교육	19	토론회
5	대통령	20	사교육

* 괄호 순위는 동일 언급량 발생 위해 표기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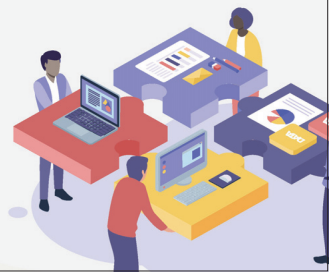
- 22년 3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공통 이슈는 '만 5세 입학 반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이 도출됨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돌봄 공통 이슈는 '돌봄 노동 관련 남녀 대립' 문제가 나타남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육아정책연구소

22년 4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교육청', '급식', 어린이집은 '대통령', '사업' 등 발생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윤석열정부 육아정책 예산 감축' 우려 나타남
- 그 외 유치원은 '매운 메뉴 급식 찬반 논란', 어린이집은 '복지부장관 가정양육 중요성 강조 논란' 등의 담론 도출됨

✓ 유치원 매운 메뉴 급식 찬반 논란

✓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 반대

✓ 윤석열정부 유치원 지원 예산 감축 우려

✓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원아 모집 정보 공유

✓ 지방교육청 학급당 유아 수 감축 정보 공유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청	11	파업
2	급식	12	어린이집
3	교사	13	코로나
4	초등	14	윤석열
5	정책	15	원장
6	서비스	16	교육감
7	선생님	17	센터
8	사업	18	국회
9	예산	19	사립
10	시설	20	비정규직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교육청', '급식', 어린이집은 '대통령', '사업' 등 발생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윤석열정부 육아정책 예산 감축' 우려 나타남
- 그 외 유치원은 '매운 메뉴 급식 찬반 논란', 어린이집은 '복지부장관 가정양육 중요성 강조 논란' 등의 담론 도출됨

✓ 윤석열정부 어린이집 지원 예산 감축 우려

✓ 수원 시립어린이집 멘토링 사업 관련 트윗 확산

✓ 어린이집 시설 지원액 삭감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 복지부 장관 '가정양육 중요성' 강조 발언 논란

✓ 서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

✓ 장애 아동 어린이집 이용률 낮아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대통령	11	환경
2	사업	12	위원회
3	시설	13	이재명
4	서비스	14	대통령실
5	교육	15	코로나
6	보육	16	국공립
7	예산	17	경기도
8	센터	18	급여
9	윤석열	19	서울
10	장관	20	장애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사건', '신고', 아동돌봄은 '지역', '센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윤석열정부 아동학대 정책 부족', '아동 채식 강요 논란', 아동돌봄은 '지자체 시니어-아동돌봄 연계 사업 실시', '지자체 돌봄 컨트롤 타워 필요' 등 언급이 나타남

✓ 윤석열정부 아동학대 정책 부족

✓ 아동 채식 강요 논란

✓ 부양 문제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아동학대 가해자

✓ 아동학대 신고 어려움 지속

✓ 검찰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활성화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사건	11	사망
2	신고	12	알림
3	수사	13	위반
4	대통령	14	선고
5	이재명	15	기소
6	검찰	16	더불어민주당
7	법원	17	살인
8	원장	18	국회
9	예방	19	불법
10	교육	20	채식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사건', '신고', 아동돌봄은 '지역', '센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윤석열정부 아동학대 정책 부족', '아동 채식 강요 논란', 아동돌봄은 '지자체 시니어-아동돌봄 연계 사업 실시', '지자체 돌봄 컨트롤 타워 필요' 등 언급이 나타남

✓ 지자체 시니어-아동돌봄 연계 사업 실시

✓ 지자체 돌봄 컨트롤 타워 필요

✓ 윤석열정부 미숙아동 돌봄비용 삭감 논란

✓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아동돌봄 비정규직 총파업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지역	11	어르신
2	센터	12	지자체
3	사업	13	비정규직
4	서비스	14	파업
5	정책	15	재단
6	시설	16	공동체
7	경기도	17	예산
8	경로당	18	의정부
9	부산	19	위원회
10	서울	20	급여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32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교육', '교육부', '장관' 등이 발생
- 유보통합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추진', '보육에만 초점 맞춘 유보통합 정책 비판', '아이들 관점 유보통합 실현' 등이 주로 언급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추진

✓ 교육이 아닌 보육에만 초점 맞춘 유보통합 정책 비판

✓ 교사 아닌 아이들 관점의 유보통합 실현

✓ 보육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 전국교육감協 유초중 교육세 3조원 대학교육 지원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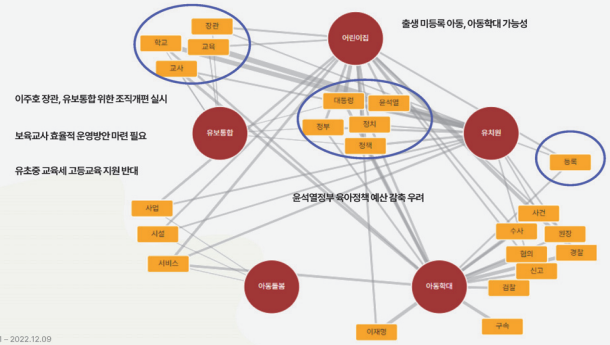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	11	교육감
2	교육부	12	복지부
3	장관	13	초등
4	보육	14	예산
5	개편	15	위원회
6	부총리	16	보육교사
7	이주호	17	윤석열
8	교사	18	간담회
9	청문회	19	지자체
10	교육청	20	저출산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33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22년 4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공통 이슈는 '이주호 신임 장관 부임', '유보통합 위한 조직개편 실시', '유초중 교육세 고등교육 지원 반대' 등이 도출됨
- 5개 키워드 공통 이슈는 '윤석열정부 육아정책 예산 감축 우려' 문제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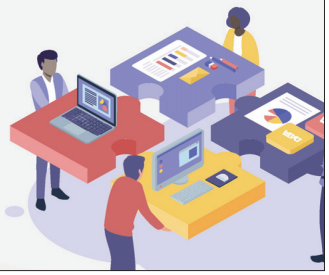


분석 기간 : 2022.10.01 – 2022.12.09

34

육아정책연구소

23년 1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마스크 실내 착용의무해제' 관련 보도, 담론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학부모', '급식', 어린이집은 '난방비', '유보통합', '제시카' 등 발생
- 그 외 유치원은 '학부모 폭언', 어린이집은 '성범죄자 영유아 시설 근처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담론 도출됨

✓ 실내 마스크 권고로 하향, 원내 마스크 착용여부 찬반 논의

✓ 유치원 급식에 모기약 및 세제 넣은 교사 징역 트윗 확산

✓ 지방 교육청 무상급식경비 인상

✓ 원아 수 저하로 사립 유치원 폐원 증가

✓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 폭언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	11	영어
2	마스크	12	교육부
3	학부모	13	인구
4	사립	14	돌봄
5	급식	15	실내
6	의무	16	공립
7	코로나	17	병설
8	원장	18	유보통합
9	예산	19	윤석열
10	센터	20	늘봄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마스크 실내 착용의무해제' 관련 보도, 담론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학부모', '급식', 어린이집은 '난방비', '유보통합', '제시카' 등 발생
- 그 외 유치원은 '학부모 폭언', 어린이집은 '성범죄자 영유아 시설 근처 거주 금지(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담론 도출됨

✓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신설로 공공보육 이용률 상향 목표

✓ 코로나 세대 영유아 언어발달 문제 대두

✓ 서울시 등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확대 및 리모델링 지원

✓ 실내 마스크 권고로 단계 하향, 정부부처간 지침 혼선

✓ 고위험 성범죄자 영유아 시설 근처 거주 금지 법 추진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마스크	11	국공립
2	확대	12	병원
3	센터	13	보육료
4	교육부	14	발달
5	유보통합	15	급식
6	코로나	16	신설
7	학부모	17	저출산
8	경기도	18	바우처
9	서울시	19	제시카
10	난방비	20	출산율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홈스쿨링', '방치', 아동돌봄은 '부모', '저출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홈스쿨링 등 가정폭력 사각지대', '방치 아동 사망'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부모급여 신설', '돌봄 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 언급이 나타남

✓ 홈스쿨링 아동학대 방송 후 가정폭력 사각지대 학생 전수조사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학생 지도 부담

✓ 아동학대 전과자 취업제한 검수 구멍

✓ 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 사진 단체 비판

✓ 원가족 보호 원칙 등 제도적 대응 미흡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보호	11	방임
2	교육	12	결석
3	선고	13	홈스쿨링
4	검찰	14	취업
5	예방	15	훈육
6	수사	16	살인
7	계모	17	성추행
8	특례법	18	대통령
9	방치	19	인권
10	방송	20	담임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홈스쿨링', '방치', 아동돌봄은 '부모', '저출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홈스쿨링 등 가정폭력 사각지대', '방치 아동 사망'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부모급여 신설', '돌봄 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움' 등 언급이 나타남

✓ 2023년 부모급여 신설

✓ 병원동행 돌봄 센터 운영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 코로나로 인한 돌봄 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움 호소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서비스	11	시간
2	사업	12	학교
3	부모	13	시설
4	센터	14	인구
5	정책	15	복지부
6	지역	16	위원회
7	확대	17	출산
8	급여	18	신청
9	가정	19	저출산
10	보육	20	코로나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교육부', '대통령', '늘봄' 등이 발생
- 유보통합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유보통합 추진안 브리핑', '늘봄학교 추진 반발', '학부모연대 유보통합 기대'가 주로 언급
- 관련하여, 육아정책 연계를 위한 사·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비판 나타남

✓ 이주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 추진안 브리핑

✓ 초등 늘봄학교 추진, 교원단체 반발

✓ 사·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주장 비판

✓ 복지부 유보통합 추진단 발족

✓ 학부모연대 유보통합 정책 추진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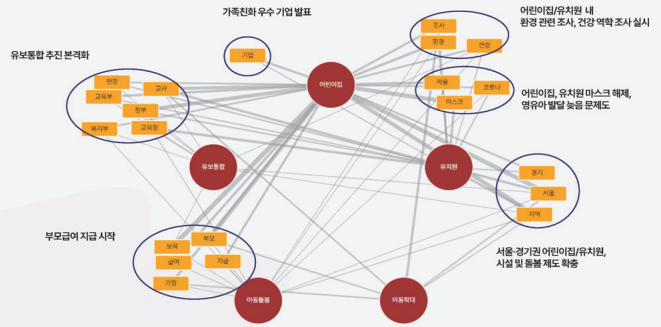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부	11	보육
2	교육감	12	노조
3	정책	13	이주호
4	장관	14	재정
5	대통령	15	교원
6	당정	16	복지부
7	늘봄	17	러닝메이트
8	초등	18	예산
9	교사	19	임금
10	윤석열	20	학부모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4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23년 1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공통 이슈는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 '유보통합 교사 양성체계 마련' 등 나타남
- '아동돌봄', '어린이집' 공통 이슈는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이슈는 '실내 마스크 해제, 코로나 영유아 발달 지연', '서울·경기 권 돌봄 시설 및 제도 확충' 등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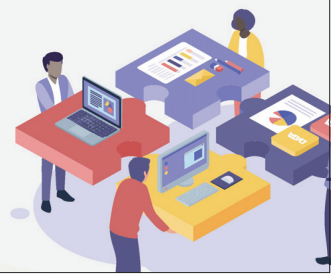


분석기간 : 2022.12.10 ~ 2023.02.28

41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3년 2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식중독', '급식' 관련 화제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영어', '마약', 어린이집은 '공공', '코로나' 등 발생
- 그 외 유치원은 '학부모 폭언',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담론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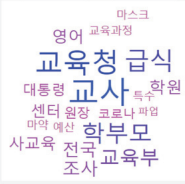
✓ 각 지자체별 봄, 초여름 급식 식중독 예방 점검 / 방울토마토 식중독 논란

✓ 불법 영어유치원 단속 및 적발

✓ 유치원부터 약물중독 예방교육 시행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돌봄 차질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	11	센터
2	교육청	12	대통령
3	급식	13	원장
4	학부모	14	코로나
5	교육부	15	마약
6	조사	16	특수
7	전국	17	예산
8	학원	18	마스크
9	영어	19	교육과정
10	사교육	20	파업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43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식중독', '급식' 관련 화제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영어', '마약', 어린이집은 '공공', '코로나' 등 발생
- 그 외 유치원은 '학부모 폭언',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담론 도출됨

✓ 지자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서울형 어린이집, 키즈카페 확대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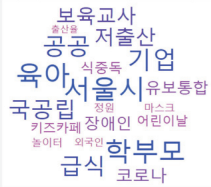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 키즈 발달지연 검사 무료 시행 / 마스크 해제 이후 질병 유행

✓ 방울토마토 급식으로 식중독 증상 논란 농가 전량 폐기 / 전국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강화, 시행

✓ 지자체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필요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서울시	11	유보통합
2	육아	12	장애인
3	학부모	13	식중독
4	기업	14	키즈카페
5	공공	15	어린이날
6	급식	16	정원
7	국공립	17	마스크
8	저출산	18	놀이터
9	보육교사	19	외국인
10	코로나	20	출산율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교관', '출생신고', 아동돌봄은 '센터', '저출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고소 교권 침해 논란', '출생미신고 아동'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지자체별 돌봄 센터 확대', '기업차원 육아문화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기관 폐업' 등 언급이 나타남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으로 아동학대 고소 면책조항 신설, 무고 강화 등 다양한 담론 발생

✓출생 미신고 영유아 화제, 복지부 전수조사 발표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사	11	교원
2	교육	12	인권
3	기관	13	특례법
4	생후	14	출생신고
5	예방	15	신생아
6	출산	16	훈육
7	유기	17	개정
8	교권	18	전담
9	청소년	19	생활지도
10	방임	20	장애인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교관', '출생신고', 아동돌봄은 '센터', '저출산' 등 발생
-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고소 교권 침해 논란', '출생미신고 아동'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지자체별 돌봄 센터 확대', '기업차원 육아문화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기관 폐업' 등 언급이 나타남

✓지자체별 돌봄 센터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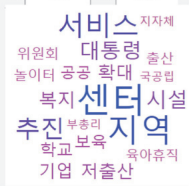
✓기업차원에서 아동 시설 확충, 육아 문화 지원 소식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 속출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대책으로 돌봄, 교육,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강조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센터	11	학교
2	지역	12	보육
3	서비스	13	공공
4	추진	14	위원회
5	대통령	15	출산
6	시설	16	놀이터
7	복지	17	육아휴직
8	확대	18	부총리
9	저출산	19	지자체
10	기업	20	국공립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4.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보통합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교육부', '대통령', '사교육비' 등이 발생
  - '윤석열 대통령 교육과정 개정, 유보통합 연계 추진', '수능을 비롯한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비 절감'이 주요 내용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에 보육교사 및 노조 배제 논란 발생, 이후 교육부 정정보도

✓윤석열 대통령, 사교육비 축소를 위해 유보통합연계 및 5세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강조

✓이주호 교육부 장관, 공공 교육 돌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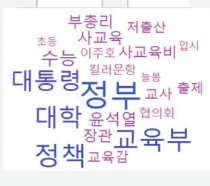
✓교사자격, 처우, 재원 마련 등 부족한 유보통합이라는 지적

✓유보통합추진위에 보육교사와 노조 배제 논란, 교육부 일축

✓유보통합 등 정부 교육 개혁안에 대한 교사 반응 부정적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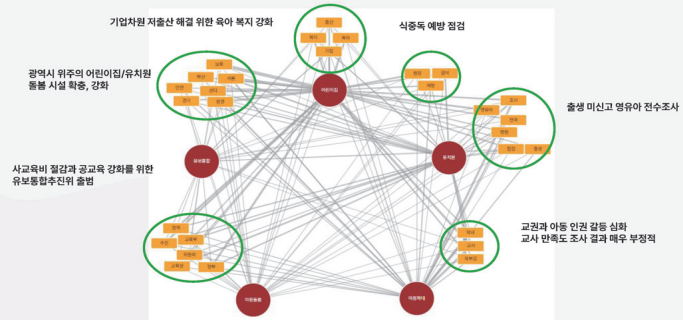
1	정부	11	사교육비
2	정책	12	교육감
3	교육부	13	교사
4	대학	14	출제
5	대통령	15	저출산
6	수능	16	킬러문항
7	윤석열	17	이주호
8	부총리	18	늘봄
9	사교육	19	초등
10	장관	20	입시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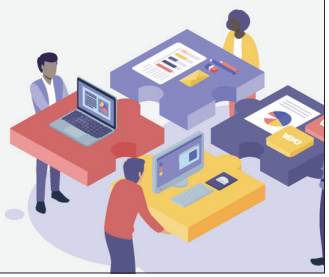
- 23년 2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공통 이슈는 '유보통합추진위 출범', '사교육비 절감' 등 나타남
- '아동돌봄', '어린이집' 공통 이슈는 '기업 차원 육아 복지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이슈는 '식중독 예방 점검', '유치원', '아동학대' 공통 이슈는 '교권과 아동 인권 갈등 심화' 등 도출됨



분석기간 : 2023.03.01 – 2023.06.30

육아정책연구소

23년 3분기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유치원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식중독', '급식', '특수(장애아)' 관련 화제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센터', '부산', 어린이집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발생
- 3분기 유치원은 '유치원 특수교사 선발 확대', 어린이집은 '장애아 교육 및 노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담론 새로 도출됨

✓교육부 불법 운영 유아 영어학원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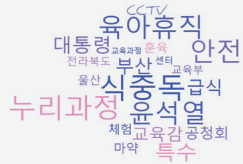
✓유치원 등 교육시설 일본산 수산물 급식 사용 논란

✓전국 지자체 유치원 식중독 합동점검 실시

✓주호민 논란 후 유치원 특수교사 선발 확대

✓부산시교육청 24시간 아이돌봄 긴급돌봄 운영, 교사노조는 강행 반대 논란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서울	11	울산
2	보육	12	대구
3	안전	13	특수
4	환경	14	CCTV
5	부산	15	육아휴직
6	교육부	16	생활지도
7	경기도	17	식중독
8	급식	18	만 5세
9	광주	19	위탁
10	보건복지부	20	외국인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2.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으로 '식중독', '급식', '특수(장애아)' 관련 화제 발생
- 유치원 주요 연관 키워드는 '센터', '부산', 어린이집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발생
- 3분기 유치원은 '유치원 특수교사 선발 확대', 어린이집은 '장애아 교육 및 노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담론 새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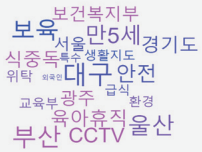
✓서울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급식 수준 강화 추진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감염병. 안전사고 예방 점검

✓경기도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부산시·교육청 돌봄·교육 격차 해소 위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부	11	윤석열
2	안전	12	교육과정
3	특수	13	마약
4	대통령	14	육아휴직
5	센터	15	식중독
6	부산	16	훈육
7	체험	17	CCTV
8	교육감	18	누리과정
9	울산	19	전라북도
10	급식	20	공청회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학대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교권', '민원', 아동돌봄은 '센터', '경기도' 등 발생
- 아동학대는 '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통과', '전국 5만 교사 서울 집회'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경기도 동두천시 방치 빈집 아동돌봄센터로 개설', '장애아동 예산 삭감 우려' 등 언급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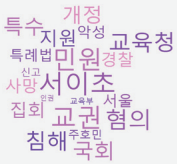
✓'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통과

✓전국 5만 교사 서울 집회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범죄특례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요구

✓장애 아동 학대 사건 지속, 출생미신고 아동 빈곤·장애·공포가 원인 지목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권	11	인권
2	서울	12	특수
3	민원	13	개정
4	신고	14	지원
5	침해	15	악성
6	협의	16	사망
7	교육부	17	집회
8	경찰	18	특례법
9	교육청	19	노조
10	국회	20	장애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3.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분석_아동돌봄

- 아동학대 연관 키워드는 '교권', '민원', 아동돌봄은 '센터', '경기도' 등 발생
- 아동학대는 '교권보호 4법 국무회의 통과', '전국 5만 교사 서울 집회' 등 언급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은 '경기도 동두천시 방치 빈집 아동돌봄센터로 개설', '장애아동 예산 삭감 우려' 등 언급이 나타남

✓경기도 동두천시 방치 빈집 아동돌봄센터로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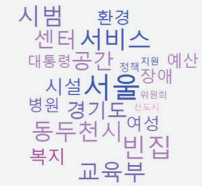
✓경기도, 교육청 등과 아동돌봄협의체 구축. 돌봄서비스 확대 논의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이성만 '노키즈존'을 아동차별로 본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서울 유아 영어학원비 월 평균 119만원, 대학 등록금 2배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센터	11	서울
2	지원	12	병원
3	서비스	13	장애
4	경기도	14	예산
5	시설	15	여성
6	정책	16	환경
7	빈집	17	동두천시
8	복지	18	교육부
9	공간	19	시범
10	대통령	20	영어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유보통합 연관 키워드로는 '교육부', '교육청', '교부금', '재정' 등이 발생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공동선언, 당정 신속 추진', '서울교육청 교부금 1조원 줄어 긴축재정 불가피', '정부 내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이 주요 내용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공동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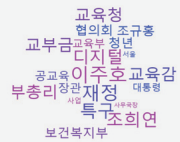
✓당정 `영유아 보육 `복지부→교육부` 일원화 신속 추진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비용드나 교부금 1조원 줄어 긴축재정 불가피

✓유보통합 이후에도 지자체에 최소권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 내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유보통합 시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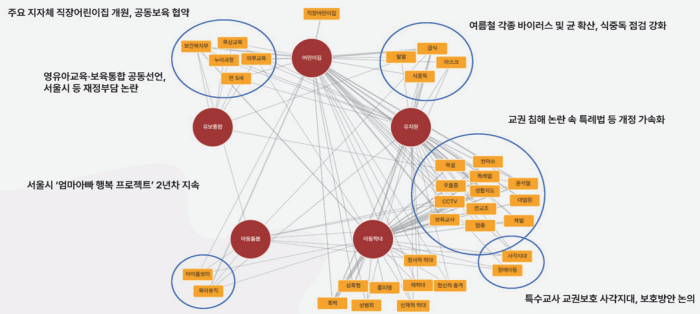
연관 키워드 순위 (언급량 기준)			
1	교육부	11	이주호
2	교육청	12	보건복지부
3	교부금	13	사무국장
4	재정	14	특구
5	서울	15	부총리
6	교육감	16	공교육
7	협의회	17	조희연
8	장관	18	청년
9	사업	19	조규홍
10	대통령	20	디지털



분석 기간 : 2022.07.01 – 2022.09.30

5. 육아정책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23년 3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보통합 공통 이슈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공동선언' 등 나타남
- '아동돌봄', '어린이집' 공통 이슈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년차 지속',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 이슈는 '여름철 각종 바이러스 및 균 확산, 식중독 점검 강화', '유치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공통 이슈는 '교권 침해 논란 속 특례법 등 개정 가속화', '특수교사 교권보호 사각지대' 등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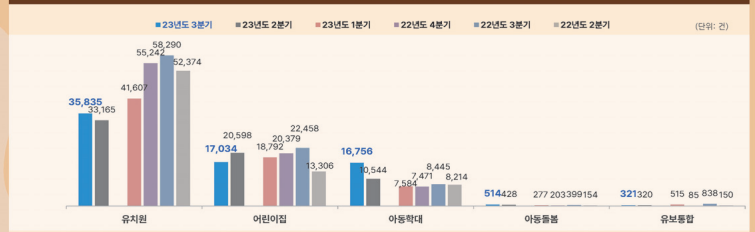
분석기간 : 2023.07.01 – 2023.09.30

육아정책연구소

III. 종합

1. 육아정책 주요 분야별 버즈 발생 비교

육아정책 분기별 버즈 발생량 비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아동돌봄	유보통합
직전분기 比	▲ 8.1%	▼ -17.3%	▲ 58.9%	▲ 20.1%	▲ 0.3%
전년동기 比	▼ -38.5%	▼ -24.2%	▲ 98.4%	▲ 28.8%	▼-61.7%

분석기간 : 2023.07.01 – 2023.09.30

22년 1분기
- 2월 코로나 자가검진 후 등원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 증가
- 강력 아동학대 사건 다수 발생으로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여론 확산

22년 2분기
- 4월 강력 아동학대범 재판 보도 지속되었으며, 6월 3주차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 첫 적용 보도
- 특히, 22년 5월 이후, 지방 선거 육아정책 공약 보도되며 관련 정보 공유 트윗, 비판 트윗 확산

22년 3분기
- 8월 만 5세 입학 추진 보도 이후 개편안 철회 국민청원 여론 확산
- 또한 5세 입학 추진 철회 이후 대안책 보도 및 담론 증가함

22년 4분기
- 모든 키워드 버즈 발생량이 감소함
- 만 5세 입학 정책 철회 이후 '아동돌봄'(-78.7%)과 '유보통합'(-75.8%)의 버즈 감소세가 크게 나타남
- 10월 4주차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금지 합헌 공표 이후 관련 공유 트윗 확산

23년 1분기
- 증가한 키워드는 '아동돌봄'(36.5%)과 '유보통합'(505.9%)로 나타남
- '유보통합' 키워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유보통합', '늘봄 정책 브리핑'이 영향
- 전년 동기 대비, '유치원'(-18.5%)을 제외한 모든 키워드의 버즈 발생량이 증가함
-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 '만 1세 이하 가정 부모급여 지급' 등이 버즈 증가에 영향

23년 2분기
- 23년 2분기 관심이 증가한 키워드는 '아동학대'(39.0%)와 '아동돌봄'(54.5%)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에서의 학대와 '아동인권과 교권침해' 관련 논란이 영향
- 전년 동기 대비, '유치원'(-36.7%)을 제외한 모든 키워드의 버즈 발생량이 증가함
- 출생 미신고 영아, 장기결석 아동 조사 뉴스 보도 다수

23년 3분기
- 관심이 증가한 키워드는 '아동학대'(58.9%)와 '아동돌봄'(20.1%)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증가는 '출산 미신고 영아 수사', '아동학대 악성민원 해결 및 교권회복 집회·관련법 통과' 이슈 영향
  - 아동학대 관련법개정, 교권회복 촉구하는 교사 집회 이슈 3분기 내내 지속,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 보도 다수
- 아동돌봄 증가는 '빈집 활용 아동돌봄센터 개설 사업' 등 경기도 아동돌봄 사업 관련 보도 영향
- 트위터 내 유치원 교사 괴롭힘 사건(카이스트 학부모 등),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심사기관 지정 비판 여론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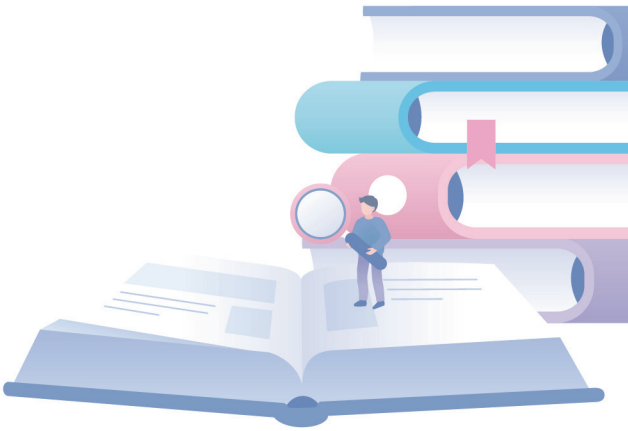
요약

	2022년 1~2분기	2022년 3~4분기	2023년 1~2분기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치원)** 영어, 사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 만 5세 입학 우려 • 육아예산 감축 우려	• **(유치원)** 급식, 식중독 • **(어린이집)** 학부모 폭언, 어린이집 환경 개선
아동학대 / 아동돌봄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컨트롤 타워 필요	**(아동돌봄)** 저출산(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폐원)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격차 문제	인력양성과 보육에만 초점 맞춘 유보통합 정책	교육부, 추진단

- 조사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양육 관련 이슈들이 발생함.
-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는 이슈도 있었음(영어, 급식, 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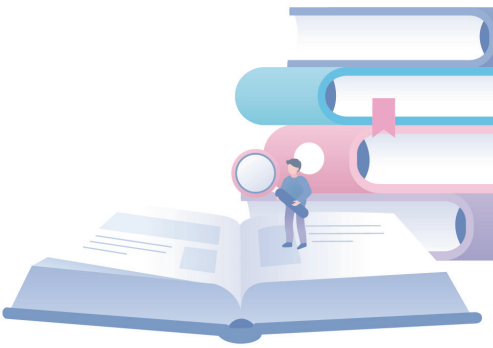
각 기관별 주요 관심 의제 발표

- 학 회
- 지역연구기관
- 언 론



학 회

- 한국가족학회
-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학회
- 한국유아교육학회
-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한국가족학회 (소개 및 주요활동) –
2023.11.22.

한국가족학회 소개 (1977~현재)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설립 목적
  - 한국가족학회는 가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이 가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사회 분야의 발전적 성장을 목표로 연구와 교육, 실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다학제적인 학회
  - 가족과 관련된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지적 교류를 촉진하여, 가족연구와 건전한 가족문화 발전을 도모
- 주요 사업
  - 가족에 관한 종합 과학적인 연구
  - 학회지(가족과 문화) 및 회원들의 연구물 간행
  - 학술사업: 연 2회 정기 학술대회(춘계/추계) 등

한국가족학회 소개 (1977~현재)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최근 3년 간 주요 활동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학술대회 개최실적	개최 횟수	2회	2회	2회	6회
	발표자 수	36명	46명	45명	127명
	토론자 수	36명	50명	31명	117명
	사회자 수	8명	15명	11명	34명
	논문 편수	36편	46편	33편	115편
	대회 일자	▪ 2021.06.05. ▪ 2021.12.04.	▪ 2022.06.04. ▪ 2022.12.03.	▪ 2023.06.03. ▪ 2023.12.02.	
	학술대회 주제	▪코로나 19와 가족(비대면) ▪재생산권과 가족의 미래(비대면)	▪탈중심의 가족: 지역에서 본 가족, 역사로 본 인구(비대면, 한국인구학회 공동) ▪가족 다양성의 확대와 새로운 가족인식(온오프 혼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컬 가족의 위협과 위기, 그리고 대전환(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공동) ▪가족 돌봄의 위기와 현실: 모두의 돌봄은 가능한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학술지 발행실적	학술지명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발간 횟수(연)	4회	4회	3회 (12월호 미포함)	11회
	발간 편	22편	16편	15편 (12월호 미포함)	53면

2023년 주요 협력 사업 (학술대회 및 포럼 등)

- 2023.12. 추계학술대회(공동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3.12. 2023년 여성가족패널 학술심포지엄(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본 학회)
- 2023.06. 춘계학술대회 (공동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2023.02. The Future of Care: Addressing the Situation of Young Carers, Korea-EU Webinar (공동주최 - Korea-EU CSO Network,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YMCA, EURO CARERS)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2023년 주요 협력 사업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2023.02.28. The Future of Care: Addressing the Situation of Young Carers, Korea-EU Webinar (공동주최 - Korea-EU CSO Network,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YMCA, EURO CARERS)

WEB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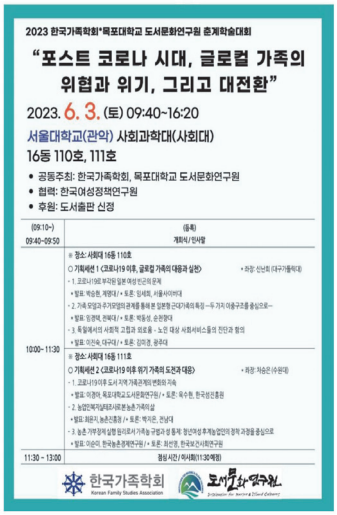
Timing	Topic	Speakers (TBD)
	Opening	
	Introductory remarks	Moderator
	Welcome remarks	H.E. Maria Castillo Fernandez
	Key challenges and recent achievements in EU and Korea	Speakers
	Moderated discussion on next actions of possible collaborations	Moderator and speakers
	Q&A via chat box	Moderator and speakers
	Closing	Mode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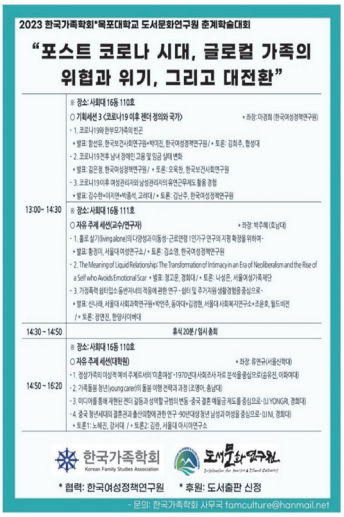
한국-유럽연합 시민사회 네트워크 (KEN)은 유럽연합의 후원으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 경험을 지닌 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교류로 서로의 경험과 성공사례 등을 나눠, 인권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보다 나은 해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주요 협력 사업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2023.06. 한국가족학회·목표대 도서문화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컬 가족의 위협과 위기, 그리고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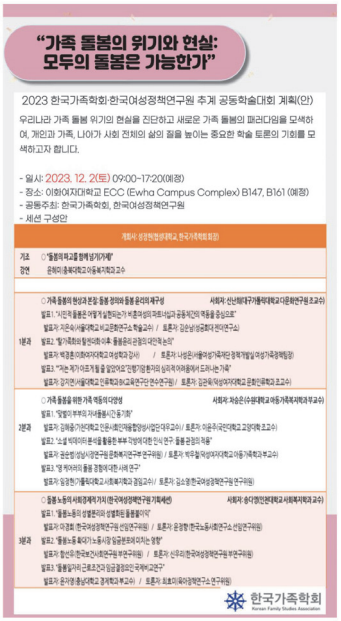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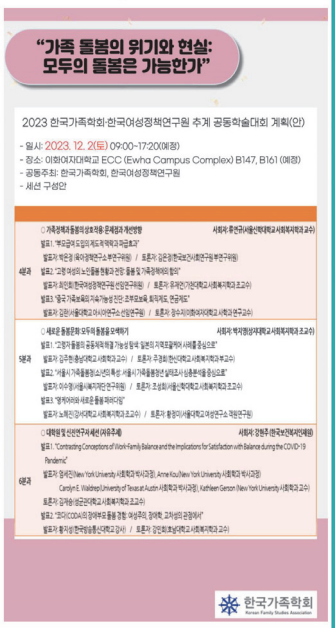


2023년 주요 협력 사업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2023.12.02.
- 한국가족학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추계 공동학술대회: 가족 돌봄의 위기와 현실: 모두의 돌봄은 가능한가





- 학술지: 가족과 문화 (연 4회)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최근 1년 이내 게재 논문 중 육아 관련 연구
  - 미혼모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정지연 (35(3))
  - 아동기 애착외상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효운;김정민 (35(3))
  - 예측할 수 없는 여정 속 우회로 찾기: COVID-19 팬데믹 시기에 학부모로 전이한 맞벌이 부모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정인혜 외 (35(2))
  - 양육기 부부의 가사/돌봄 시간과 세대 간 거주 근접성, 이여봉 (35(2))
  - 1990년 이후 한국 아동양육시설 보도의 명칭 변화 분석, 조아현 (35(1))
  - 잡지『부모필독(父母必讀)』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 이후 보육 사사화(privatization)의 곤경: '조부모 보육' 담론을 중심으로, 김란 (35(1))
  - 아동가구의 다차원적인 박탈이 가족 건강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황연재 (34(4))

- **34집 4호 ~ 35집 3호까지 총 18편 중 7편 육아 관련 연구**

-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방안?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 가족과 육아, 돌봄, 유아교육, 인구아동정책, 가족정책,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저출생 정책 등 다양한 제도 및 실천/정책 영역과 관련된 다학제적 협동연구 및 협력, 논의 가능 (주제 예시)
  -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보편적 육아·돌봄의 사회화
  -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돌봄의 확대, 중앙·지자체 저출생 관련 정책 등 다양한 육아·돌봄정책에 대한 효과성, 성과분석
  - 해외 정책 및 사례 고찰을 통한 보편적 육아·돌봄의 재정립과 정책/제도 개선방안 등
- 학술대회 사업 (주제 예시)
  - 미래사회의 가족 다양성과 변화, 그리고 육아·돌봄 정책의 진단과 과제
  -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한 육아·돌봄 / 가족문화와 육아·돌봄
  - 저출생 시대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사회서비스
  - 육아·돌봄의 변화와 가족의 현실, 성찰 등
- 육아정책 관련 학술 심포지엄, 포럼 등 연계 진행
  - (예) 육아정책연구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포럼 등

한국가족학회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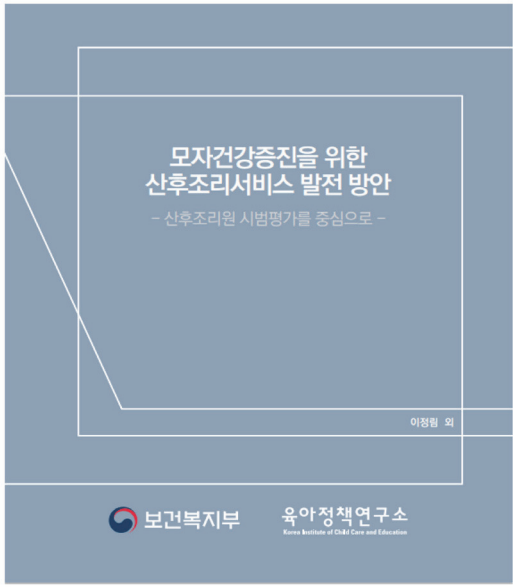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Q & A

한국가족학회

2023 KICCE 육아정책연구
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한국모자보건학회 사무총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김희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모자보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8년 한국모자보건학회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식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모자보건학회
건강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식

2018년 한국모자보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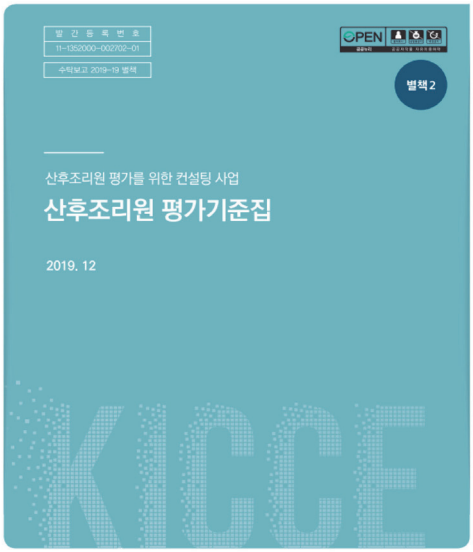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13-01
수탁보고 2018-07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손 인 숙 (건국대학교병원 교수)
최 병 민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교수)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희 선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교수)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한국모자보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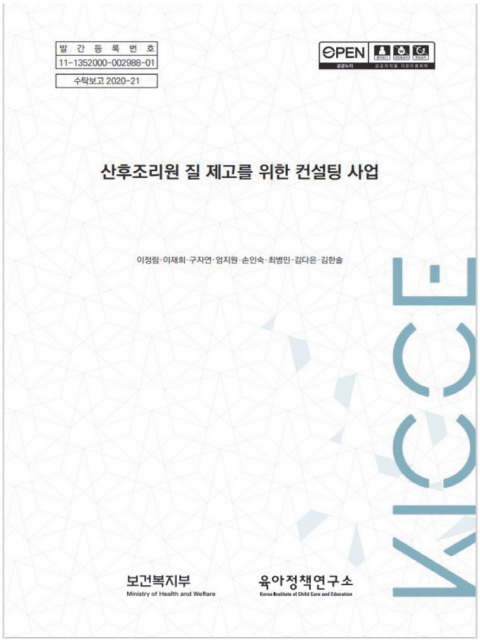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01-01
수탁보고 2019-18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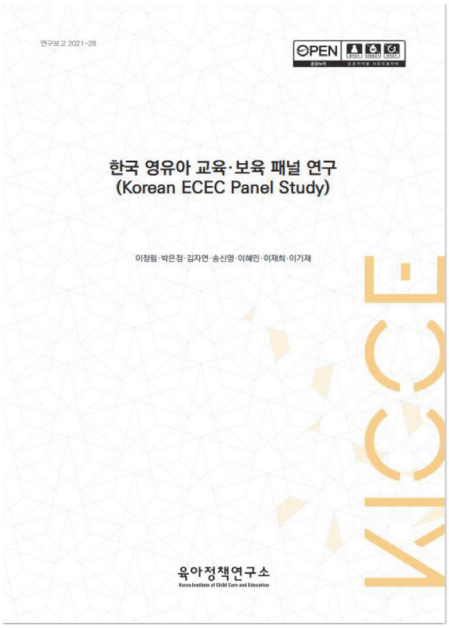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희 선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교수)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박 규 희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교수)
서 보 림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송 채 원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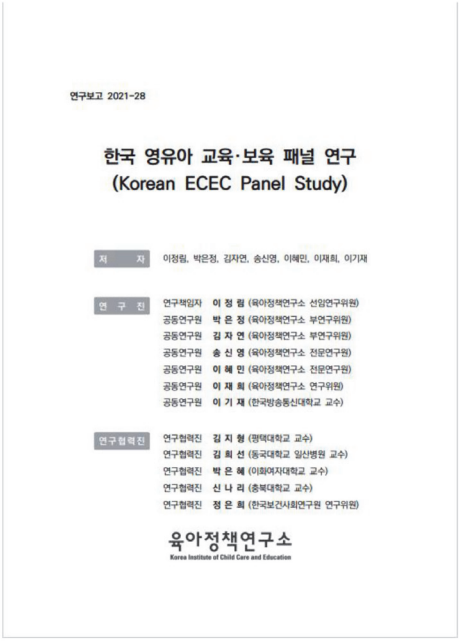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0년 한국모자보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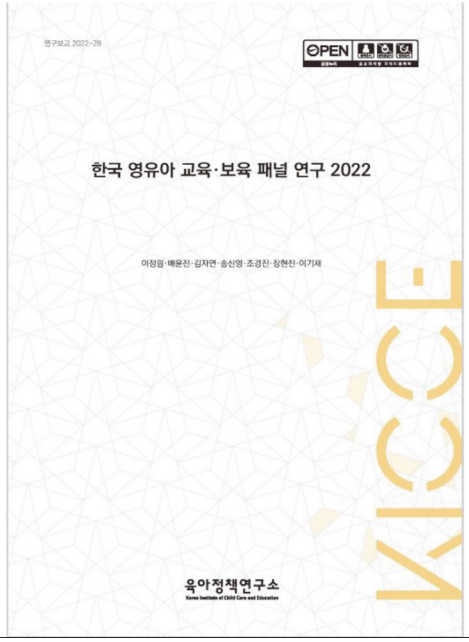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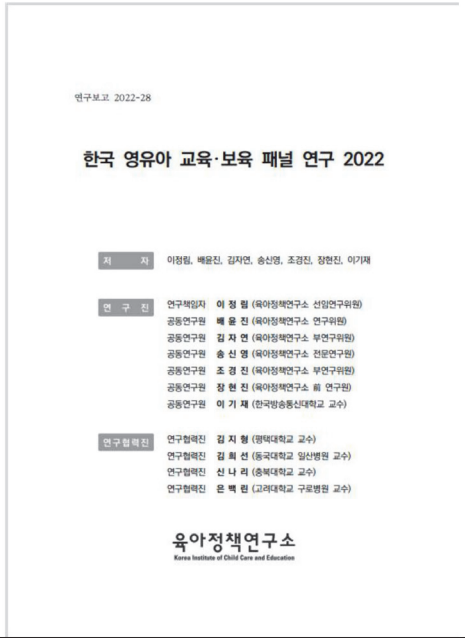
2021년 한국모자보건학회





2022년 한국모자보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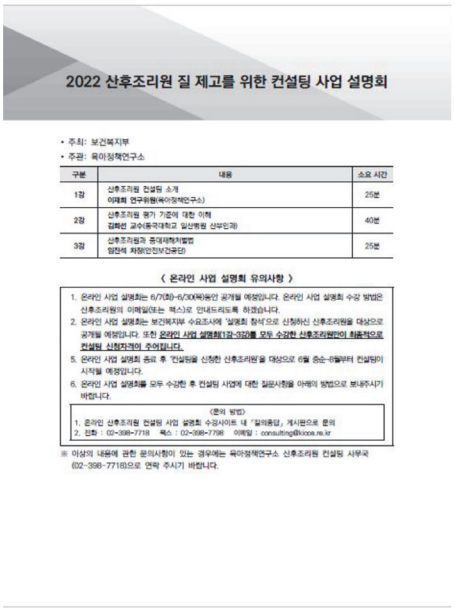
연구보고 2022-28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연구 2022

저 자	이정림, 배윤진, 김자연, 송신영, 조경진, 장현진, 이기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조 경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 현 진 (육아정책연구소 前 연구원)
	공동연구원 이 기 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연구협력진	연구협력진 김 지 형 (평택대학교 교수)
	연구협력진 김 희 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수)
	연구협력진 신 나 리 (충북대학교 교수)
	연구협력진 은 백 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2년 한국모자보건학회



2022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설명회

-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구분	내용	소요 시간
1장	산후조리원 컨설팅 소개 이재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25분
2장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 김희선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40분
3장	산후조리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임창석 차장(안전보건공단)	2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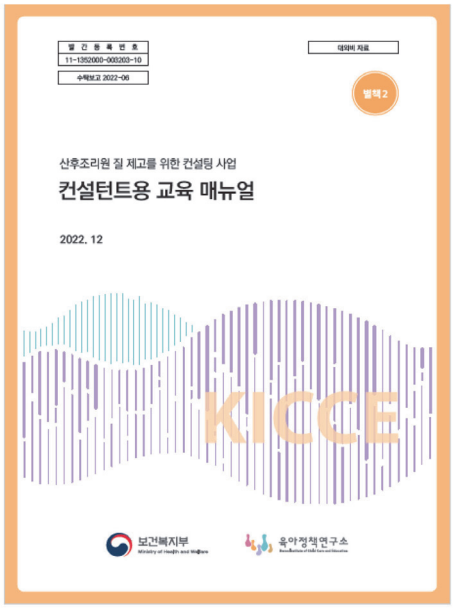
〈 온라인 사업 설명회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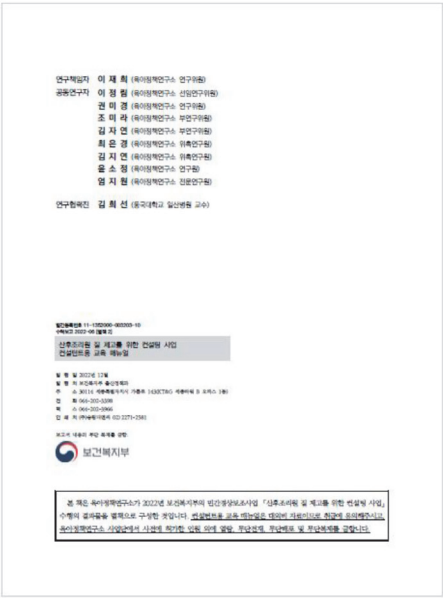
1.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6/7(화)~6/30(목)동안 공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 수강 방법은 산후조리원의 이메일(또는 팩스)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수요조사에 '설명회 참석'으로 신청하신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1강~3강)를 모두 수강한 산후조리원만이 최종적으로 컨설팅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5. 온라인 사업 설명회 종료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6월 중순~이달부터 컨설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6.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모두 수강한 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방법)
1. 온라인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설명회 수강사이트 내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문의
2. 전화 : 02-398-7718 팩스 : 02-398-7798 이메일 : consulting@kicce.re.kr

※ 이상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 (02-398-771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국모자보건학회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인식개선 전략 개발 연구**
  : 다운증후군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인식개선 전략 개발 연구
: 다운증후군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 희귀질환 인식개선 전략 개발 연구: 다운증후군

우리 다운 이야기
조회수 1.6천회 • 6일 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우리 다운 이야기" 모두가 함께 건강

새 동영상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우리 다운 이야기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구독자 6.5만명

구독 | 161 | 공유 | 오프라인 저장 | 클립 | 저장

출처 대한민국 국가 보건 당국
WHO가 보건 정보 출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보세요

조회수 9.1만회 3주 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인식개선
"우리 다운 이야기"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 희귀질환 인식개선 전략 개발 연구: 다운증후군

우리 다운 이야기
-희귀질환 인식 개선 사업보고회 -

※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함께 합니다

주최 질병관리청
주관 한국모자보건학회
후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10시~11시30분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강당 (연구동 9층)

Program

10:00	등록	
10:10	개회 및 행사 소개	김희선 한국모자보건학회사무총장
10:15	내빈 소개	
10:20	인사말	김종일 한국모자보건학회장
10:23	축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10:35	희귀질환 극복 수기 공모전 시상식	최홍석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
10:45	수상자 소감 발표	
10:55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 개발 연구 소개	이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국장
11:00	다운증후군 인식 개선 홍보 영상 및 안내문 소개	최안나 한국모자보건학회 연구위원장
11:10	다운 가족 소감 발표	
11:25	폐회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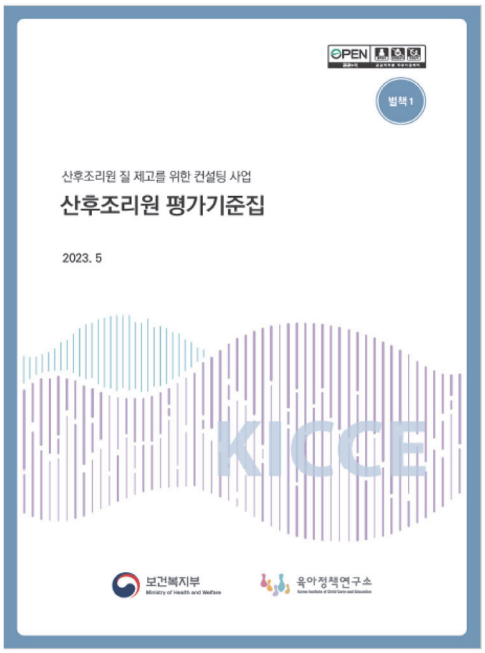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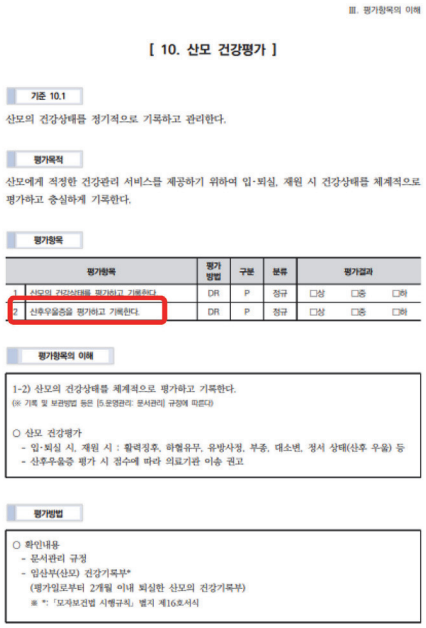
버스 이용시
광지로 67l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앞 하차
간선버스 - 101, 152, 261, 202, 105, 149, 407
지선버스 - 2014
광역급행버스 - 6403

2024년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지원 정책
-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양육 환경 영향 분석
-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간호관리
- 산후조리원 모성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연구
  - 산모앱기반 산후우울 정도관리

2023년 한국모자보건학회





Ⅲ. 평가항목의 이해

[10. 산모 건강평가]

기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적정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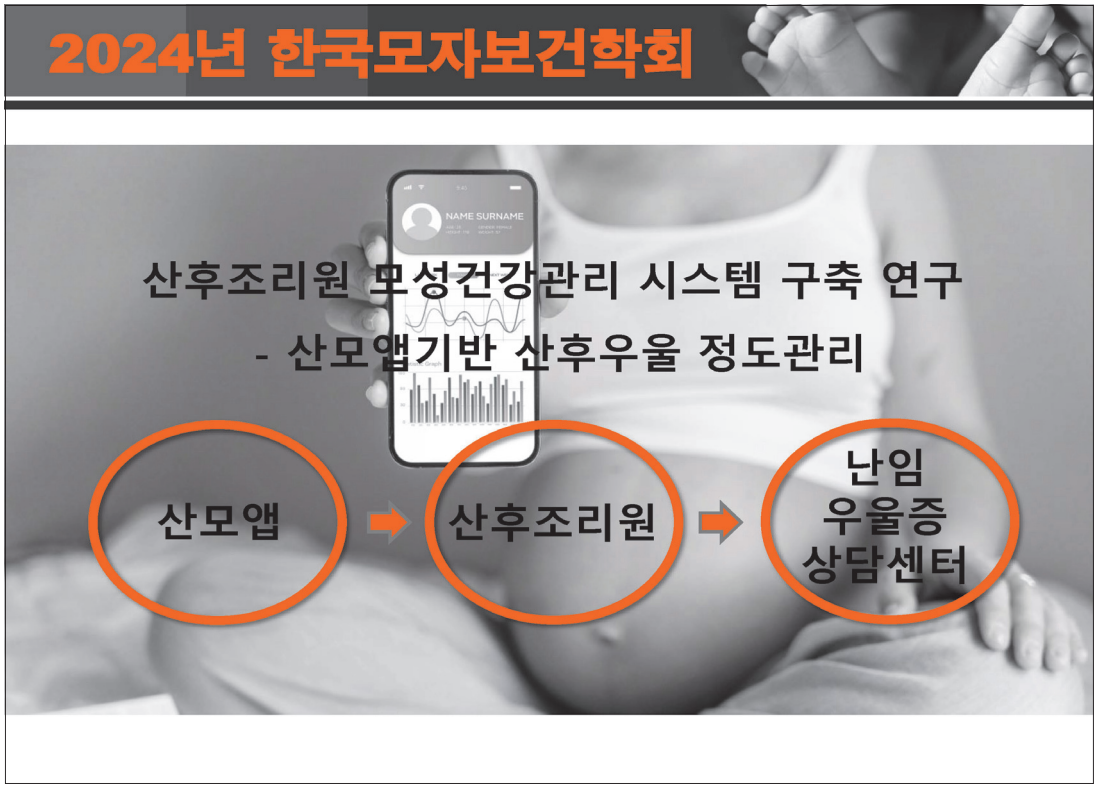
평가항목의 이해

1-2)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산모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사정, 부종, 대소변, 정서 상태(산후 우울) 등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024년 한국모자보건학회
NAME SURNAME
산후조리원 모성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산모앱기반 산후우울 정도관리
산모앱
산후조리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DONGGUK
UNIVERSITY
HOSPITA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2023
육아정책연구소 생태계 포럼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 모색 및 연구주제 발굴

한국보육지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기관소개

- 학회 목적
  -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과 교육,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보육정책 개발 등을 통해 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정기학술대회 개최
  - 연 2회 개최
  -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자체 연구비지원 연구과제 발표
  - 우수신진연구자 대상의 제선보육상 시상 및 기금 운영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발간
  - 2005년 12월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권 1호 발간 시작
  - 연 6회 발간 등재지

한국보육지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운영현황

- 보육지원세미나 '함께 배움' 개최

-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 적용 및 실천과 관련된 교사 주도의 학습 공동체 및 세미나 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는 공유의 장을 마련
- 2022년 영아보육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보육과정 실천 공유회
- 2023년 우리 어린이집 일지를 소개합니다

- 수탁연구 수행

- 2021년 보육교직원 교육의 효과성 검증 (한국보육진흥원)
- 2023년 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지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운영현황

- 학회 자체 연구비지원 연구과제 수행

- 2019년 ① 보육교직원의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과 책임 ②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역할책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실제
- 2020년 ① 코로나19와 보육현장의 영유아, 교사: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② 코로나19와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긴장과 도전 그리고 지원을 찾다 ③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어린이집의 일상, 그리고 던져진 과제
- 2021년 ① 영유아의 권리: 노력과 방향, 영유아의 권리 실행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② 보육교사의 전문성 하양과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의 방향성
- 2022년 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영유아 교사의 핵심역량 ② 보육교사의 전문성 지원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① 인구변화로 인한 보육현장의 현황과 변혁 방안 ② X-M-Z 보육교사의 세대 및 직무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현안연구 제안 및 육아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

- 연구주제 제안: 교사근무시간 및 교사배치 다양화 방안
  - 유보통합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유치원의 기본교육과정 & 방과후와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 연장보육의 형태가 존재
  - 교육과 보호를 분리하지 않는 방향, 영유아 대면시간을 줄임으로써 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기관의 특성과 부모의 요구가 반영되는 방식이 모두 만족되는 모형 설계가 필요

한국보육지원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hildcare & Education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한국아동학회 소개

주요 연구분야

-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학문 영역의 발전
  : 아동발달, 보육과 교육, 아동 상담, 부모교육, 가족관계
- 정책수립과 아동과 사회의 행복 기여

운영현황(연구협력 등)

1. 경사연협력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위탁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대책 방안(Ⅱ) : 부모용 선별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2. 경사연협력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위탁과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 구축 방안 (Ⅱ)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 보육과정 재구조화 2차년도 연구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2023/2024 주요 연구주제

2023

1. 디지털과 AI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음.
   :즉각적인 대처와 장기적인 관점의 준비 차원에서 연구 진행
2.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놀이심리" 영역)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음.

2024

- 유보통합이나 아동발달 이슈 등을 다루려고 하나 아직은 미정임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2023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2024 계획

2023

1. 좌담회 개최: **아동학계 원로에게 배우는 유보통합을 위한 지혜**
   : 25대 전효정 한국아동학회장 시회로
   조복희, 이영, 우남희 전임회장님들과 좌담 진행
2. 춘계학술대회: **아동 환경에 대한 관점의 확대: 공간, 디지털, 관계**
3.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심포지움 공동개최:
   아동놀이심리상담사의 사회적 역할과 법제화
4. 추계학술대회: **AI시대, 새로운 "아동다움"**

[비고] 춘계, 추계학술대회 회원 250명~300명 참석

2024

- 5월 춘계학술대회
- 10월 추계학술대회
- 아동관련 이슈가 있을 경우 포럼이나 세미나 진행 예정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국정현안과 한국아동학회의 연구 및 사업 연계 현황

연구

[현안]

- 저출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아동을 우선하는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

- 아이CU 학술연구 진행하여 추계학술대회 발표 권리존중과 미아예방/실종아동찾기 프로그램 아이CU 프로그램 관련 연구 진행
-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력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

사업

[현안]

1.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재원 마련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2.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동친화 사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아동과 부모를 우선하는 사회환경 조성' 학회 차원의 노력

[관련 연구 및 사업 추진]

1. (사)한국아동학회 공익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승인
2. 아동과 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정책 등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의 사례를 발굴, '아동우선사회 공로상(Child First Society Contribution Award) 제정. 제1회 수상기관으로 삼성복지재단을 선정하여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였음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 제안

2023

-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아동이 어떻게 소비되고 정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2024

- 코로나와 아동의 발달(미정)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아동우선사회(Child First Society)를 위하여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를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이를 통해 후속 출산율 향상으로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요구됨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논의:
(사) 한국 유아교육학회

회장 : 정정희 (경북대학교)

KSECE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주요연구분야

✓ 유아교육 최신동향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연구

✓ 학계와 교육현장의 효과적 연계 및 유아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 교원 협력 연구

▪ 운영현황

일본보육학회와 MOU 체결

영유아교육 보육 통합 추진위원회 위원 및 **아이행복 자문단**

교육부 후원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특별강연

KSECE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2023년 주요 연구 주제

✓ 한국 유아교육의 학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미국의 K-학년제와 주립 유아 학교 정책을 통해 본 우리나라 유보 통합을 위한 유아교육 정책 방향
- 스웨덴의 유아교육학제 및 유보 통합에 대한 고찰
- 뉴질랜드 유보 통합 추진 과정과 영유아교육 체제 탐구
- 영국의 5세 취학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 유아교육 분야의 성과

주제	1. 유아교육 분야 학문적 성과와 과제
발표	정정희(경북대), 최연철(한국교원대), 박건령(경성대)
토론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이효림(경북대)

✓ 교사 양성 자격 체계 개편안

✓ 유치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2024년 주요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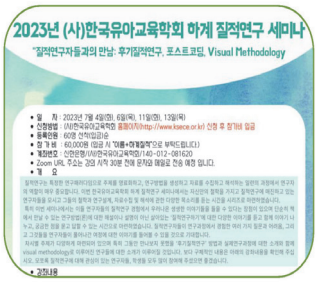
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 관련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아교육과 보육 패러다임 구축

미래 변화 대비 유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 관련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2023년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2024년 계획



2023 춘계학술대회

- 참석인원 총 637명
- 국문발표원고 48편, 포스터 2편

제12차 국제학술대회

- 참석인원 총 557명
- 발표원고 64편, 포스터 4편

질적연구방법세미나

- 23.07.04~23.07.13(4회기)
- 강연자 4명, 참석인원 96명

KSECE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국정(지역) 현안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연구 및 사업연계현황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및 유보통합

- **육아정책연구소 위탁과제 :** 미래형 영유아 교육, 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 (1)
- **육아정책연구소 위탁과제 :** 2차
- **[신문기고] 모두의 유아교육:** 앞으로, 兒Pro 기획 연재
- 유보통합토론회 및 교육부 심포지엄

미래형 영유아 교육, 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 (2)

- 2023 춘계학술대회
- 제 12차 국제학술대회

KSECE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1. '0~5세 (영) 유아학교 체제'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 방향
2. 2019 개정 누리과정 분석 및 미래형 영유아 교육과정 개정 연구
3. 교사 자격 통합과 교사 양성과정 관련 연구
4. 유아교사와 유아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1. '유아의 심리적 웰빙과 육아정책의 상호작용'

포럼, 학술대회 개최

2. 육아정책과 아동교육의 연계성 강화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중앙-지방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교육,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무환경' 제도 강화. 직업과 가족생활의 균형유지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한 지역별 '고립지수' 에 따른 육아정책 실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정책 마련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한국육아지원학회

경인교육대학교 최 일 선

KSECEC

목 차

- 한국육아지원학회 주요 현황
- 연구협력 및 정책 방안 제안

KSECEC

한국육아지원학회 주요 현황

□ 기관소개(주요연구분야, 운영현황 등)

구 분	제 목(주제)
주요연구분야	• 개정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놀이, 배움, 가르침의 통합을 위한 도전과제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간구성,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 홀리스틱한 영유아 평가, 부모참여 및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연구 •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유아교육의 미래를 통찰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생태계, 글로벌 시민교육, 공감을 통한 다양성 등 연구
운영현황 (연구협력 등)	• 연 2회 학술대회 및 1회 연구세미나 개최 • 등재학술지 '육아지원연구' 연 4회 발간 •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 과제 (협력연구)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 부모 지원 자료 개발

KSECEC

□ 2023년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구 분	제 목(주제)
2023년	• 뉴 패러다임 시대, 미래 유아교육 탐색(상호문화역량을 통한 글로벌 시민교육 / 공감과 소통을 통한 다양성 이해) •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연구
2024년	미정

□ 2023년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2024년 계획

구 분	내 용
2023년	**[춘계학술대회]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상호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유아 글로벌 시민교육**(유아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적 접근: 필요성과 가능성/ 비판적 문해력 접근을 통한 유아의 상호문화역량 함양/ 참여하고 협력하는 어린이 시민 이야기: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변화) **[추계학술대회] 뉴패러다임 시대, 유아교육의 미래 통찰: 공감과 소통을 통한 다양성 이해** (챗GPT 시대에 왜 공감과 다양성이 더 중요해지는가?/ 미래사회 유아의 역량: 신인류의 더불어 살아가는 법 배우기/ 교실 속 놀이하며 자라난 공감, 소통, 다양성 이해 이야기)
	[하계 세미나] 유아교육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 연구방법 활용: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활용 및 실제
2024년	미정

KSECEC

□ 국정(지역)현안과 귀 기관의 연구 및 사업 연계 현황

구 분	현안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
연구	유보통합추진정책	•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교사자격 양성체제 개편 포럼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모델 관련 제안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 지원	• 미래사회의 유아교육 통찰을 통한 유아 역량 이해 도모를 위한 연구 교류(상호문화역량, 공감과 소통 역량 지원)
	교원양성기관 교수자의 현장성 강화 및 교사 역량 개발 기조	• 온라인수업에서의 수업 설계 및 전략 세미나 시행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법 세미나 실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학습자의 디지털 역량 함양 위한 디지털 AI 소양 강화 기조)	• 인공지능시대의 디지털 매체, 디지털 놀이, 교육 환경 및 시스템 탐색
사업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개입 강조	•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 및 부모 지원 자료 개발 진행

KSECEC

연구협력 및 정책 방안 제안

□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구 분	제 목(주제)
연구	**◎ 다양성 기반으로 여는 교육 에이전트의 관계 탐색** • 교사, 부모 등 교육관계자의 소통, 공감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 주체(에이전트)간의 관계 혹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생태계 구축 **◎ 근거 기반 차원에서 유초이음교육의 효과 연구** • 유초연계를 위한 이음교육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교육주제 별 이음교육 효과(성과) 분석 **◎ 지속가능한 미래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영유아 기초 역량 연구** • 역량기반 교육과정 동향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기초적인 역량 도출 **◎ 부모됨의 긍정적인 의미 탐색: 예비부모의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위한 기초 연구** •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대상을 미혼남녀로 변경하여 '부모됨',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질적 연구 탐색 • 예비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우려 원인 분석

KSECEC

구 분	제 목(주제)
사업	◎ 장애위험 영유아(발달지연) 지원 온라인 통합 사이트 운영 • 사회경제적 수준, 기관 유형, 지역적 특수성 및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지원 시스템구축 •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 고려하여 온라인 무료 간략형 진단 프로그램 운영 ◎ 놀이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 공공형 키즈카페: 서울형 키즈카페가 성공 사례로 유휴 공간에 설치·운영하는 공공 실내놀이터, 확대 추세에 있음(영주, 대구에서 시도함) • 전국적인 육아 인프라 구축의 기조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놀이 공간 및 운영 실태 조사 실시와 지역사회 기반 놀이 공간 확보 및 운영 방안 구축

KSECEC

□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 디지털시대 대비한 유아 및 교사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정책

-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디지털 환경 구축
- 유아교사의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육아지원·발달지원 통합 체제 구축

- 임신 및 출산부터 가족을 사례관리하여 출산지원, 의료지원, 양육지원, 발달지원, 교육·보육지원, 가족지원을 원스톱 체제 구축

◎ 부모의 양육 역량(효능감)강화 서비스 지원 사업

- 유아교육기관 최초 이용 전, 의무 부모교육 수강 사업
-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 제도 및 지원방안의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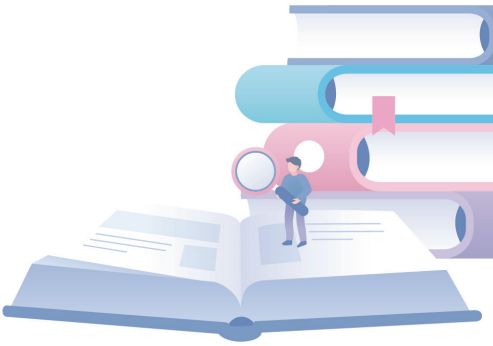
◎ 저출산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거점화한 미혼남녀 대상의 양육 인식 개선 교육 사업

-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직장인 중 미혼남녀 대상으로 '부모됨',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배양 위한 교육 실시
- 대중매체에서 강조한 '부모됨', '양육'의 어려움, 고됨, 자신의 희생, 불이익 등의 이미지 재고
- 예비 부모의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도모
-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자료 및 추가 제작 자료 활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KSEC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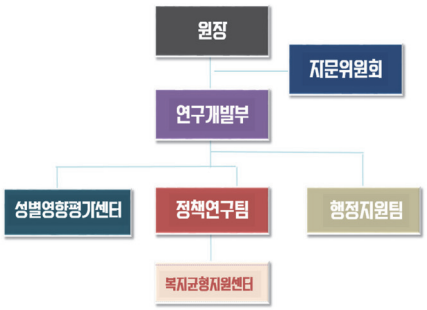
지역연구기관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1. 기관소개

- 조직도



- 정원/현원

구분	현원
전체	17
4급	1
5급	1
6급	6
7급	1
8급	0
9급	2
전문경력관	1
기타	5

시간선택제 리급(2), 전담연구원: 공무직(1)/ 기간제(1), 환경미화원: 공무직(1)

강원 특별자치도 | 여성가족연구원 Women&Family Research Institute

2. 부서별 주요 업무

연구개발부

Research & Study
정책연구

- 여성·가족·복지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 양성평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

Forum & network
정책포럼 및 네트워크

- 양성평등 정책포럼 개최 및 운영
-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Provision of information
도민 맞춤형 정보제공 및 통계생산

- 맞춤형 정책 정보 생산 및 제공
- 웹진, 홈페이지·SNS 운영(연구성과 홍보)

성별영향평가센터

Gender Impact assessment
성별영향평가

-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분석
-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Consulting & education
컨설팅 및 교육

-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여성친화도시 컨설팅
- 도 및 시군 과제담당자 성인지 교육

복지균형지원센터

Community security plan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 수행

- 지역사회보장사업 수행을 위한 광역지원체계 기반 확충
-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강원 특별자치도 | 여성가족연구원 Women&Family Research Institute

3. 2023년 연구과제

일자리, 가족, 복지 분야 정책연구 사업 수행

일자리·노동

- 여성기업 경영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가족·일생활균형

- 도내 기업 육아재택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복지·돌봄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귀농귀촌인 지역선택요인과 정착 지원방안

현안(저출산·지방소멸)

- 인구유입을 위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강원 특별자치도 | 여성가족연구원 Women&Family Research Institute

4. 2024년 연구과제(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사회복지 분야 중심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2025-2029)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일·결혼·출산 조사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성별영향평가
- 정책현안 연구 (Ⅰ,Ⅱ)

강원특별자치도 | 여성가족연구원 Women&Family Research Institute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2023. 11.

CONTENTS

I. 본원 비전 및 미션

II. 주요 연구 분야

III. 주요 연구 주제

IV.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1. 본원 비전 및 미션

비전 및 미션

미션 (설립목적)	모두의 평등으로 함께하는 충남 실현			
비전	도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여성가족 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전문성	소통	상생·협력	변화·선도
경영목표	연구 활용 가치 극대화			
	누구나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최상의 도민 만족 제고			

1. 본원 비전 및 미션

3대 전략방향 및 9대 전략과제

3대 전략방향

9대 전략과제

2. 주요연구 분야

주요 연구 분야

□ 기관소개(주요 연구분야, 운영현황 등)

<table>
<tr><th>구 분</th><th>제 목(주제)</th><th>비 고</th></tr>
<tr><td>주요연구분야</td><td>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 사회복지 정책 연구</td><td></td></tr>
<tr><td>운영현황
(연구협력 등)</td><td>· 연구인력 20명(여성가족연구실 10명, 사회보장연구실 10명), 연구행정지원 10명

<여성가족연구실 연구과제 현황(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계</th><th colspan="2">원내</th><th colspan="3">원외</th></tr><tr><th>기본</th><th>정책</th><th>현안</th><th>수탁</th><th>공동협력</th></tr><tr><td>2022 실적</td><td>41</td><td>9</td><td>10</td><td>13</td><td>8</td><td>1</td></tr><tr><td>2023 실적</td><td>37</td><td>8</td><td>10</td><td>9</td><td>8</td><td>2</td></tr></table></td><td>*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청소년진흥원 3개 공공기관 통합('23, 상반기) 이전 실적</td></tr>
</table>

2. 주요 연구 주제('23 ~ '24)

23년 및 24년 주요 연구주제

□ 귀 기관의 2023년 주요 연구주제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구 분	제 목(주제)
2023년	· 충남 청소년부모 지원 방안 연구 · 충남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제3차 충남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2023-2027) · 충남 자치경찰 인사운영 방안 연구(일·생활균형 및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충남 경력단절여성 규모 증가 원인 분석 · 충남 다문화가족 청년 사회진입 현실과 지원 방안 등의 20여개 기본과 정책연구, 30여개의 현안연구와 수탁연구

2. 주요 연구 주제(’ 23 ~ ’ 24)

23년 및 24년 주요 연구주제

2024년	· 충청남도 가족 실태조사 연구(기초연구)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진단 연구(정책연구) ·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 충남 청소년부모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충남 여성어업인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충남도내 가사서비스 현황과 제공기관 활성화 방안 · 충청남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 충청남도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등 15여개

3.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육아정책 가족정책 인구정책 연계 로드맵 추진

(필요성) 지역격차의 심각성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정책방향)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도정방향 「지역주도 균형발전」
- 지속적인 지역 발전과 관련한 지역 격차는 인근 지역과의 여러 생활 영역에 대한 격차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결정
-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기 전 도정방향인 「지역주도 균형발전」에 맞춰 격차를 분석,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안

(주요내용) 각 영역별 4개년 기본계획으로 개별 추진중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의 공통과제(성인지적 성재생산 건강권, 일생활균형, 돌봄의 사회화, 다양한 가족, 양성평등 건강 증진 및 문화조성 등)를 연계하여 종합적 연차별 로드맵 제시 필요

(앞으로) 충청남도 지표 및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23.12.)
- 타 시·도 및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인구, 경제(재정현황 등), 환경, 교육과 문화, 공공안전 및 기반 시설 등 분석
-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인프라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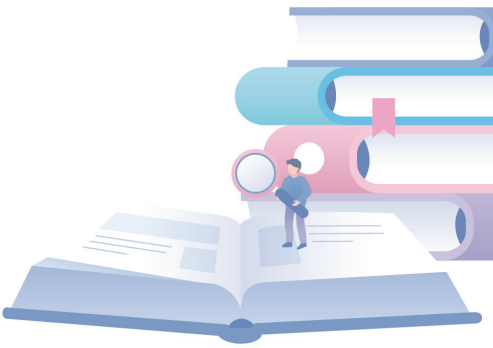
※ 지역 간 격차 분석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중심 분석

(정책효과)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 기여, 기초 단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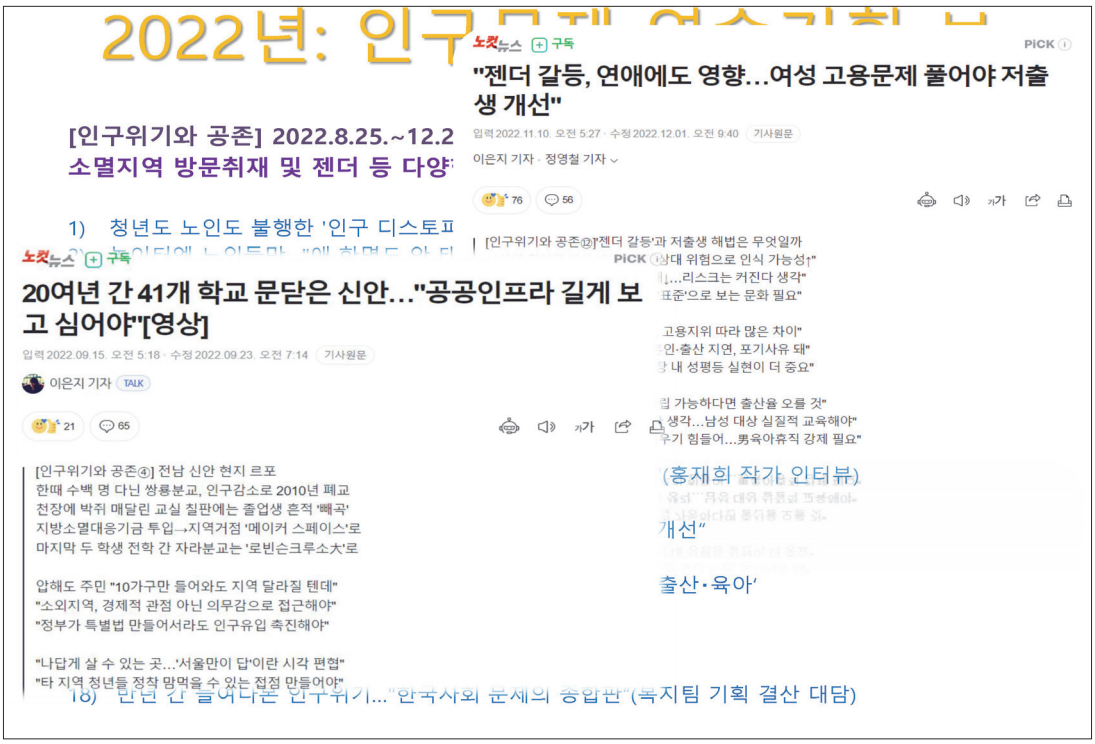
THANK YOU

언 론

- CBS
- EBS
- SBS
- 브릿지 경제



"지금 이 아이는 자라서 "
입력 2021.10.16. 오전 6:02 기사원문
김효은 기자
"저출산은 집단자살"…1억 주면 아이 낳을까요?
입력 2022.01.01. 오전 6:02 · 수정 2022.01.01. 오전 10:13 기사원문
김효은 기자
[영상]'저출생 위기 극복' 선봉에 나선 CBS…'생명돌봄 국민운동캠프' 출범
입력 2021.11.11. 오후 8:04 · 수정 2021.11.12. 오전 11:06 기사원문
이은지 기자 TALK
핵심요약
11일 양천구 목동 사옥서 출범식…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복지부 등 후원
김진오 사장 "CBS만 할 수 있다는 갈급함으로…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이영훈 목사 "1천만 성도가 함께 노력" 소강석 목사 "선도적 '패스파인더 역할"
文대통령 "사회 변화 능동적으로 읽어내야…모두가 힘 모으면 극복 가능"
이재명 "사회 불평등·격차 관리해야" 심상정 "국가돌봄체계로 나아가야"
양성일 복지차관 "향후 5년, 위기극복 마지막 골든타임…과감한 투자 필요"
내년부터 생명돌봄사회공헌대상 시상도…"기업과 지자체 변화 유도할 것"
-'Happy Birth K' 캠페인 및 생명돌봄 국민운동캠프 출범하며 선도적 포럼 개최


2022년: 인구
[인구위기와 공존] 2022.8.25.~12.2
소멸지역 방문취재 및 젠더 등 다양
1) 청년도 노인도 불행한 '인구 디스토피
"젠더 갈등, 연애에도 영향…여성 고용문제 풀어야 저출생 개선"
입력 2022.11.10. 오전 5:27 · 수정 2022.12.01. 오전 9:40 기사원문
이은지 기자 · 정영철 기자
[인구위기와 공존②]'젠더 갈등'과 저출생 해법은 무엇일까
20여년 간 41개 학교 문닫은 신안…"공공인프라 길게 보고 심어야"[영상]
입력 2022.09.15. 오전 5:18 · 수정 2022.09.23. 오전 7:14 기사원문
이은지 기자 TALK
[인구위기와 공존④] 전남 신안 현지 르포
한때 수백 명 다닌 쌍룡분교, 인구감소로 2010년 폐교
천장에 박쥐 매달린 교실 칠판에는 졸업생 흔적 '빼곡'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지역거점 '메이커 스페이스'로
마지막 두 학생 전학 간 자라분교는 '로빈슨크루소大'로
압해도 주민 "10가구만 들어와도 지역 달라질 텐데"
"소외지역, 경제적 관점 아닌 의무감으로 접근해야"
"정부가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인구유입 촉진해야"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서울만이 답'이란 시각 편협"
"타 지역 청년들 정착 맘먹을 수 있는 접점 만들어야"
(홍재희 작가 인터뷰)
개선"
출산·육아'
18) 만년 간 들여다본 인구위기…"한국사회 문제의 종합판"(복지팀 기획 결산 대담)

2023.
9. 18(월)
13:30 ~ 20:00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
2023
대한민국
KOREA POPULATION FORUM
인구포럼
인구와 기업, 그리고 성장
보건복지부
CBS
Karen
Bogenschneider
위스콘신대학교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
Jonathan Chaloff
OECD 수석정책분석관
진미정 학회장
한국가족정책학회
신영미 박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2023년도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포럼

–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

2023. 11
EBS 김재천

목 차

1. 기관소개(주요 연구 분야, 운영현황 등)

2. 2023년 주요 연구주제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3. 2023년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2024년 계획

4. 국정(지역)현안과 연구 및 사업 연계 현황

5.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6.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1. 기관소개(주요 연구 분야, 운영현황 등)

① 방송 채널

구 분		편성 내용	주간 방송시간
지상파	디지털TV EBS1	지식채널	05:00 ~ 26:00 (21시간)
	디지털TV EBS2	창의융합교육	06:00 ~ 25:00 (19시간)
	라디오 FM	인문·문화·교양	05:00 ~ 26:00 (21시간)
위성 케이블 IPTV	EBS 플러스1	고교	00:00 ~ 24:00 (24시간)
	EBS 플러스2	초중학·직업 교육	07:00 ~ 25:00 (18시간)
	EBS English	생활·실용 영어 학습	06:00 ~ 24:00 (18시간)

※ EBS 1TV(지상파)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및 IPTV 등에 동시 재전송(EBS 2TV 제외)
※ 유아어린이 전문 PP채널 『EBS KIDS』는 자회사인 EBS미디어㈜에서 운영

EBS

3

1. 기관소개(주요 연구 분야, 운영현황 등)

② 인터넷 서비스

구 분	사이트 주소	주요 서비스
평생교육	ebs.co.kr	TV, FM, EBS 플러스2(직업) 다시보기
	ebse.co.kr	EBS English 영어방송 다시보기
	ebslang.co.kr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학교교육	primary.ebs.co.kr	EBS 초등 전문 사이트
	mid.ebs.co.kr	EBS 중학 전문 사이트
	ebsi.co.kr	EBS 플러스1 고교 강의 인터넷 강좌
	ebsmath.co.kr	수학학습 전문 사이트
	ebssw.kr	자기주도형 SW교육 온라인 플랫폼
	ebsoc.co.kr	EBS 온라인클래스(원격교육플랫폼)
사회공헌	ebs.co.kr/free	시각, 청각 장애인 전용 사이트
	ebs.co.kr/durian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서비스

EBS

4

2. 2023년 주요 연구주제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① 2023년 주요 연구주제

구 분	제 목(주제)
2023년	**1. 미래 한국 비전 '대기획 시리즈' 제작** • 저출생 극복 10부작(인구대기획, 초저출생) 독서 진흥 10부작(책맹인류), 수업 혁신 30부작 **2. 부모가 가장 신뢰하는 유아·어린이 콘텐츠 제작** • 〈처음 수학〉 〈처음 영어〉 〈씽씽쌩쌩 탈 것〉 등 인지, 인성 교육 콘텐츠 **3. 기초학력 교육 혁신** • 문해력, 수해력 신장을 위한 특화 교재 개발 (기초학력의 핵심요소인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의 체계적 빌드업을 돕는 진단평가·문해력·수해력·영어 ELT 등 커리큘럼) **4. 교육정책 변화 공동 대응** • 수업 혁신 30부작, 2023 필통톡

EBS

5

2. 2023년 주요 연구주제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① 2023년 주요 연구주제

구 분	제 목(주제)
2023년	**5.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 EBS 다큐, EBS 스토리,EBS 컬렉션(사이어스), EBS 키즈, EBS English 등 11개 채널 ※ EBS 키즈 : 구독자 340만명 (그림책 뿡뿡뿡(전래동화/세계명작), EBS 놀이터, 똑똑 문해력 박사, 웃기는 처음 영어, 곰씨와 처음 수학, 처음 타요 씽씽씽, 딩동댕 유치원, 한글용사 아이여야, 모여라 딩동댕, 최고다! 호기심딱지, 번개망토의 비밀 등) **6. 유아·어린이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 • 유아·어린이 시청행태에 부합하는 OTT 플랫폼 소구형 콘텐츠 기획 제작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인성, 인지 함양 신규 프로그램 신설 • 'EBS키즈', '애니키즈' 등 TV 외 플랫폼 적극 활용으로 유통 활성화

EBS

6

2. 2023년 주요 연구주제 및 2024년 주요 연구주제

② 2024년 주요 연구주제

구 분	제 목(주제)
2024년	**1. 미래 한국 비전'대기획 시리즈'제작** • 저출생 극복 5부작, 독서 진흥 5부작 등 준비 중 **2. 교육정책 변화 공동 대응** • 교육 소통 콘텐츠 강화('함께 학교'), 부모교육 콘텐츠 및 서비스 강화 추진 중

EBS

7

3. 2023년 학술대회 개최 실적 및 2024년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2023년	**1. 국회 토론회** •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 방안 (1월/ 이태규, 유기홍 의원 등 11명 의원 공동 주최) •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6월/ 유기홍, 박찬대 의원실 주최)	
2024년	미정 (국정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한 내용 중심)	

EBS

8

4. 국정(지역)현안과 연구 및 사업 연계 현황

① 연구

구 분	현안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	비 고
연구	1. 창의융합교육이 접목된 실시간 실가상 K-댄스 교육 서비스 및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교실형 인터렉션 콘텐츠 시나리오 개발 및 공교육 확산	문체부, ETRI, 카이스트 등 (2023~2025년)
	2.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저조도 조명에서의 인터렉션 기술 기획 및 개발 연구 계획	EBS 콘텐츠 및 공간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시연 및 사업화 모델 도출	문체부, ETRI, 고려대 등 (2023~2025년)

EBS

9

4. 국정(지역)현안과 연구 및 사업 연계 현황

② 사업

구 분	현안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	비 고
사업	1. AI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공통 콘텐츠 지원 사업	교육부
	2. 교육청 AI 교수학습 플랫폼	교육청별 교수학습 플랫폼 학습 콘텐츠 제공 사업 (문항, 강의)	경기도교육청-KT
	3. 지자체 교수학습 플랫폼	서울런 학습 콘텐츠 제공 사업 (강의, 교재)	서울시
	4. 교육 소통('함께 학교')	교육 소통 플랫폼 및 운영 사업인 '함께 학교' 사업 (교권 보호, 학부모 교육 등)	교육부-전국 17개 교육청
	5. AI 맞춤형 멘토링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AI 기반 1:1 맞춤 멘토링, LMS 학습 관리시스템 제공 등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국방부 경남교육청
	6.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대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지원 사업	교육부
	7. AI·SW 교육 플랫폼 운영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과기정통부

EBS

10

5. 육아분야 연구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구 분	제 목(주제)	비 고
연구	-	-
사업	**1. 유보 통합 관련** • 공익 캠페인 (EBS 1TV, 유튜브) • 다큐멘터리, 특집 토론회, 좌담회 (EBS 1TV, 유튜브) **2. 유아 문해력 사업** • EBS 문해력(ERI 지수) 활용한 공동 사업 (교육격차 해소 차원, 시범 사업 → 본 사업) **3. 유아 인성·인지 함양 영상 콘텐츠 제작** • TV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 (유관기관 및 EBS 플랫폼 동시 탑재) **4. 부모교육 콘텐츠 제작** • 부모교육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TV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 • 부모교육 특강 **5. 주요 현안 및 행사에 대한 EBS 뉴스 보도 협의**	교육부, 연구소

※ TV 프로그램 및 유튜브 콘텐츠는 유관기관 및 EBS 플랫폼 동시 탑재로 활용도 극대화
(예시 : 2023 필통톡, 수업혁신 다큐 등 교육부 교육TV 및 EBS 유튜브 채널 동시 탑재)

EBS

11

6.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1.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영유아 정책 관련 심층 다큐 제작 및 방송

- 영유아 교육 및 복지의 중요성 및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다룬 실험 다큐

2. 주요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연중 캠페인

- 방송 캠페인 및 숏폼 형태의 유튜브 탑재로 바이럴 정책 마케팅 절실

EBS

12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육아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특집 생방송

창사특집 2021 희망TV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11월 19일(금) 20일(토) 양일간 13시간 생방송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 화두, "저출생" 그리고 "육아존중문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국 대한민국, 저출생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22세기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이 불투명하다. 2020년 대한민국 출생아 27만명, 출산율 0.84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저이다. 〈창사특집 2021 희망TV〉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희망TV 25년을 기념하는 〈창사특집 2021 희망TV〉
정애리, 박시은, 신현준, 이지훈, 홍경민 스페셜MC 총출동!

〈창사특집 2021 희망TV〉는 25번째 방송을 기념하며 희망TV의 가족으로 불리는 스타들이 MC로 총출동했다. 2004년부터 15차례나 희망TV에 출연했던 "인간 희망TV" 정애리부터 기부로 인연을 맺은 신현준, 선행천사 박시은이 스페셜 MC를 맡았다. 딸바보 홍경민과 새신랑 이지훈도 "육아고수"가 되기 위해 스페셜 MC가 되었다는데.. 이들과 함께하는 〈창사특집 2021 희망TV〉에 기대감이 더해진다.

◎ 희망TV 25년. 시청자와 함께 이뤄낸 기적의 성과들! 최초 공개!
① 60년 만에 시작된 변화! 〈희망TV〉와의 약속을 지킨 김부겸 총리

지난 5월 〈희망TV〉에 출연해 보호종료아동을 향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김부겸 국무총리.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60년 만에 보호종료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노숙부터 수천만 원의 빚까지, 충격적인 사연들을 가진 보호종료아동들을 〈창사특집 2021 희망TV〉 1부에서 직접 만났다.

② "한국 엄마를 찾습니다" 후원자를 찾아 한국에 온 몽골청년

지난 6월 한국 엄마를 찾는다는 몽골 청년 발진냠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희망TV〉를 통해 13년 전부터 자신을 후원해준 한국의 후원자를 찾고 싶어 한국에 왔다는 발진냠. 하지만 7년

전 연락이 끊긴 이후 한국에서도 후원자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고. 12월이면 그는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과연 발진냠은 한국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19일 〈창사특집 2021 희망TV〉 1부에서 공개된다.

③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국내 첫 시청각장애인 이관주 씨,
〈희망TV〉에서 최초 공개되는 그의 충격 근황

1994년 시청각장애인 최초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25세 이관주 씨.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포부와 달리 27년 후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일 〈창사특집 2021 희망TV〉 6부에서 최초 공개된다. 그리고 2020년 〈희망TV〉 방송 후 방송클립이 220만 뷰를 돌파한 시청각장애 예지 씨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바로 교육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 예지씨의 희망찬 도전에 기대가 모아진다. 또 방송인 서동주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희망TV〉의 시청각장애 장기프로젝트에 함께했다. 직접 촉수화를 배우며 시청각장애인과 소통한 서동주의 설리번 도전기는 〈창사특집 2021 희망TV〉 6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스타들의 육아 이야기

육아여왕 가수 별과 육아의 특전사로 불리는 최영재가 현실 육아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개그맨에서 전업주부가 된 이정수의 100% 리얼 육아대디의 삶이 펼쳐진다. 또 한 건물에 18명의 대가족이 사는 이지훈 가족도 〈희망TV〉와 함께해 기존 방송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방출할 예정.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육아 찐토크는 19일 〈창사특집 2021 희망TV〉에서 전격 공개된다.

◎ 대한민국이 “육아”로 하나 되다!
SBS 희망TV와 여섯 곳의 지역민영방송이 함께하는 육아이야기

육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육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창사특집 2021 희망TV〉에서 총 여섯 곳의 지역민영방송과 함께 전국의 “알짜배기 육아정책”을 모아봤다. G1 방송, kbc 광주방송, JTV 전주방송, UBC 울산방송, TJB 대전방송, JIBS 제주방송이 함께하는 〈전국육아정책열차〉. 19일 〈창사특집 2021 희망TV〉에서 출발 예정이니 늦지 말고 SBS 채널에 탑승하시길.

대한민국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TV〉가 준비한 육아존중문화 확산 프로젝트! 〈창사특집 2021 희망TV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는 11월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13시간 생방송된다.

《 방송 일정 》

◎ 희망TV 1부
- 2021년 11월 19일 (금) AM 08:40~10:50
- MC 및 출연 : 홍경민, 정애리, 최영아, 별, 최영재

◎ 희망TV 2부
- 2021년 11월 19일 (금) AM 10:50~PM 12:20
- MC 및 출연 : 홍경민, 최영아, 김다영

◎ 희망TV 3부
- 2021년 11월 19일 (금) PM 15:00~17:00
- MC 및 출연 : 이지훈, 최영아, 이정수, 가수 나비 부부, 김다영

◎ 희망TV 4부
- 2021년 11월 19일 (금) PM 17:30~19:50
- MC 및 출연 : 이지훈, 최영아, 별, 최영재, 김다영

◎ 희망TV 5부
- 2021년 11월 20일 (토) AM 00:30~03:00

◎ 희망TV 6부
- 2021년 11월 20일 (토) AM 08:30~11:00
- MC 및 출연 : 신현준, 박시은, 김주우, 서동주, 김다영

육아정책연구소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초저출산 대한민국, 앞으로 육아정책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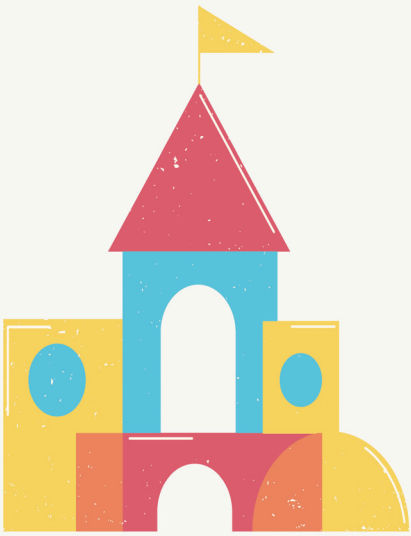
이정아

브릿지경제

저출산과 육아정책

- "5년 내 민간 어린이집 절반 이상 사라질 것"… 우려되는 영유아 보육체계
- 중앙행정기관 '아빠 육아휴직' 50% 육박… 민간기업 견인한다
- 저출산 대응 정책 '자동육아휴직'에 선택권 부여… "회사 눈치 안 보도록"
- "비혼출산, 입양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하고 육아정책 마련해야"

"5년 내 민간 어린이집 절반 이상 사라질 것"… 우려되는 영유아 보육체계



50% ↓

출생아 수 감소로 민간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노인요양시설로 탈출하는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향후 5년 내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책 없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동이 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공돌봄의 질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의 공백을 쉽게 메울 수 없다는 점에서 영유아 보육체계가 우려된다.

중앙행정기관 '아빠 육아휴직' 50% 육박… 민간기업 견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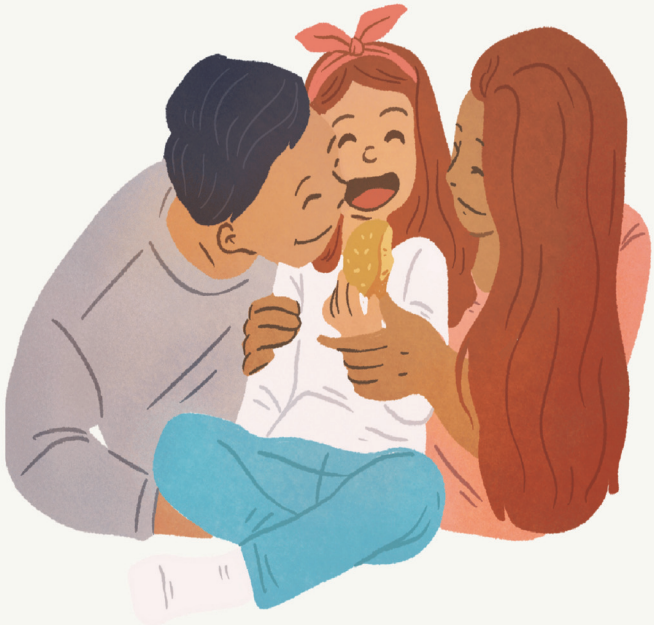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에서 아빠 육아휴직 이용률은 지난 2020년 39.0%에서 지난해 4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61.0%에서 54.0%로 낮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저출산 대응 정책 '자동육아휴직'에 선택권 부여… "회사 눈치 안 보도록"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지급되는 급여 상한선을 월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생각해보기

비혼출산, 입양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육아정책연구소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hellofeliz@viva100.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초저출산 대한민국, 앞으로 육아정책 방향은

이정아

브릿지경제

2023 제2차 KICCE 육아정책 연구생태계 네트워크 포럼

변화의 시대,
육아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를 논한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